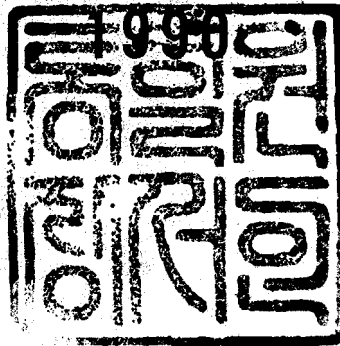


東北亞의 新國際秩序와 美·蘇의 政策變化



國土統一院

冊을 내면서

- 本 冊子는 國土統一院 政策調查研究事業의 一環으로 推進된 特殊課題 研究結果 報告書입니다.
- 本 研究는 美·蘇의 和解政策追求에 힘입어 극심한 競爭·對決構圖에서 共存·協力構圖를 示顯하고 있는 東北亞의 新國際秩序가 美·蘇의 政策에 어떠한 變化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을 中心으로 하여 考察한 것입니다.
- 따라서 同 冊子가 韓半島 周邊情勢 및 統一政策研究의 參考資料로 積極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합니다.
-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0. 12

調 查 研 究 室

總 目 次

I. 蘇聯의 極東戰略과 東北亞의 新國際秩序
(崔 鍾 起) 3

II. 東北亞 政治經濟의 變型과 美國의 役割
(鄭 正 佶) 51

III. 東歐 社會主義와 東아시아 社會主義의 比較分析
(李 命 植) 87

I. 蘇聯의 極東戰略과 東北亞의 新國際秩序

崔 鍾 起

(서울大 行政大學院 教授)
(韓國國際關係研究所 理事長)

目 次

| | |
|----------------------------|----|
| I. 序 論 | 7 |
| II. 脫冷戰과 蘇聯의 新思考外交政策 | 9 |
| 1. 冷戰의 終息 : 몰타會談 | 11 |
| 2. 蘇聯의 新思考外交政策 | 12 |
| (1) 蘇聯經濟의 딜레마 | 12 |
| (2)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실패 | 16 |
| (3) 아시아地域 國際關係의 특징 | 21 |
| III. 蘇聯의 對東北亞 政策轉換 | 24 |
| 1. 아시아政策 基本路線 | 24 |
| 2. 아시아 域內國家들과의 關係增進 | 27 |
| 3. 시베리아 開發計劃 | 29 |
| 4. 地域的 軍縮 | 38 |
| IV. 4強構造의 新力學關係와 韓半島 | 40 |
| 1. 蘇聯과 美·中·日 | 40 |
| 2. 4強과 韓半島 | 45 |
| V. 結 論 | 48 |

I. 序 論

레닌時代以來 蘇聯은 自國이 유럽세력인 同時에 아시아세력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態度表明에도 불구하고 傳統的으로 蘇聯은 유럽우선적 外交政策을 取하여, 지역정책수준에서 유럽의 安定이 전략적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現在 東아시아는 새로운 變革의 局面을 맞고 있으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蘇聯의 정책우선순위에서 한층 重要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베리아, 극동 및 中央아시아地域의 開發意圖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 同地域內외의 戰略, 政治經濟的 연계가 증대되고 있기때문이기도 하다. 蘇聯이 고르바초프以來 同地域國家들을 대상으로 한 政治經濟的 평화제안과 함께 軍事的 유착 등 다변적 外交路線으로 변모한 것은 바로 이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地域國家들과의 歷史的·文化的 유대관계의 脆弱性은 蘇聯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와 같은 軍事力 위주의 政策路線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東아시아의 각 地域國家에 대한 蘇聯의 軍事力은 制限的이나마 政治的 影響力을 行使해 온 것은 事實이지만, 보다 一般的인 의미에서의 政治的 効用性이라는 觀點에서 볼때 同地域에서의 蘇聯의 軍事的 目標은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蘇聯이 이제껏 軍事力에만 主로 의존한 結果이다. 同地域에서의 蘇聯의 政策目標과 軍事的 目標은 서로 兩立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蘇聯이 軍事的 次元에서 보여주고 있는 強硬路線은 蘇聯이 지금까지의 問題點을 克服키 위해 政治·經濟的 平和攻勢를 強化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 日本이 反蘇同盟으로 發展하는 것을 막고, 中國・日本・美國間 軍事協力을 저지하며, 나아가 '아시아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目標에는 명백한 失敗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宣言에 의해 特徵지어지는 蘇聯의 최근 對東아시아 新政策路線은 바로 이같은 政策失敗에 따른 自認의 結果이며 美國과 同地域 同盟國들간의 이해상충이 增大됨에 따라 長期的인 面에서는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둘 수도 있다는 點에서 蘇聯側에 대한 새로운 機會가 되고 있다.

本 論文은 蘇聯의 東아시아 新政策路線이 과연 어떠한 內容 및 特徵을 가지며, 美・中・蘇・日의 4強構造에 어떠한 變形을 招來했는지를 把握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한 本 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 2章에서는 蘇聯의 新思考外交政策의 배경을 全世界的 및 地域的 水準에서 分析하기로 한다. 이 過程中에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集團安보體제의 性格 및 失敗要因을 分析함으로 고르바췌프以前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에 있어 問題點을 지적한다.

第 3章에서는 蘇聯의 對아시아 新政策을 政治經濟軍事的 側面에서 각각 그 特性을 把握하고자 한다.

第 4章에서는 아시아의 新國際體제의 性格을 4強構造의 變形過程을 통해 分析하며, 이같은 新力學關係가 韓半島의 위상정립에 어떠한 影響을 줄 것인지를 把握하고자 한다.

II. 脫冷戰과 蘇聯의 新思考外交政策

1945年 2月 알타會談以來 國際關係는 蘇聯의 膨脹主義(Expansionism)와 美國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 맞부딪힌 소위 알타 冷戰體制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지난 반세기는 美國中心의 西歐資本主義陣營과 蘇聯中心의 東歐共產主義陣營間에 이데올로기·政治軍事經濟社會 등 모든 분야에서 相對的 優位 또는 절대적 安保를 確保하기 위한 全世界的 競爭·對決關係로 점철되어 온 것이다. 軍事的으로 美·蘇 兩國은 核武器와 在來式 武器競爭에서 팽팽히 맞섰을 뿐더러, 各者의 同盟國이나 非同盟國을 包含한 第3世界國家들에 販賣하는 무기수출로 인하여 軍事競爭의 冷戰國際化를 招來하였다. 마찬가지로 美·蘇는 서로 各各 資本主義經濟同盟圈과 社會主義經濟同盟圈을 形成, 經濟的 葛藤關係가 持續되었다.

世界的 冷戰化는 아시아地域에서도 例外는 아니어서 特히 韓半島가 열전의 場所로 轉化되었다. 1950年 韓國動亂과 南·北韓으로의 分斷, 1949年 中華人民共和國의 탄생, 日本(1951年 9月), 필리핀(1951年 8月) 및 韓國(1953年 10月)과 美國間 兩者 軍事同盟條約의 締結, 中國(1950年 2月), 北韓(1961年), 몽고(1946年 2月) 및 베트남社會主義共和國과 蘇聯間 同盟·友好·相互援助條約의 체결, 베트남戰(1965~1973年) 등이 모두 冷戰時代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 70年代를 거치면서 아시아의 國際政治情勢는 알타 體制의 變化를 예고하는 일련의 徵候를 보여준다. 敗戰國 日本이 經濟力을 回復, 經濟發展에서 西歐國家들중 美國에 이어 第2位를 記錄하며 經濟大國으로 부상, 國際舞臺에서 立地를 強化하였고, 中·

蘇紛爭으로 表面화된 社會主義國家들간의 對決樣相이 첨예화되었다.

새로운 國際關係의 變化는 아시아리는 地域水準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었다. 힘의 政治 (Power Politics)가 아닌 相互依存에 의해 支配되는 國際體制, 核武器時代의 人類全滅危機에 대한 核恐怖, 그리고 이와 同時에 美·蘇 兩國의 國內經濟問題들이 相互複合되면서 새로운 變化를 위한 轉換點을 맞게 되었다.

新國際體制的 창출을 가져오게 한 動因은 다음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第2次 世界大戰以後 繼續되어 온 科學技術革命은 한편으로 急速한 產業化를 가져왔고 情報技術과 交通手段의 發達は 世界的 相互依存을 심화시켰다. 情報通信과 交通手段의 發達は 蘇聯 및 東歐를 위시한 全體主義社會를 開放시키는데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科學技術革命에 의한 急速한 工業化는 環境問題, 자원고갈, 國際테러, 마약문제 등 全人類에 共同으로 解決해야 할 새로운 課題를 안겨주었다. 이는 두번째 범주인 核武器에 의한 人類全滅의 恐怖意識과 맞물려 새로운 國際政治를 要求하게 되었다. 즉 勢力均衡, 軍事力에 依存하던 힘의 政治時代는 물러서고, 國際關係에서 軍事的·經濟的·社會的·環境的 問題 등 多邊的 諸問題를 兩極이 아닌 多者間 協商을 통해 解決하고, 軍事力이 더이상 外交政策의 유일한 手段이 될수 없으며, 中國, 日本 및 西歐의 政治·經濟力 부상으로 힘의 分散化가 이루어지는 國際環境의 變化過程에서 冷戰體制的 性格은 희미해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冷戰體制를 이끌어 온 美·蘇 兩國은 2次大戰以來 막대한 軍事費를 支出해 왔으며 이러한 軍事費 支出은 만성적인 財政赤字를 招來했고, 특히 美國의 경우 1989년에는 約 1,250億달러

에 이르는 貿易赤字를 안고 獨逸·日本 등 새로이 浮上한 經濟大國들과 貿易競爭을 벌여야 하는 일종의 國內的 經濟危機를 맞게 되었다. 實際로, 世界 GNP 總額中 美國이 차지하는 比率은 1950 年代初 40%에 이르던 것이 1970 年代末 20%로 減少되었으며, 貿易量 또한 1980 年代 中盤에는 約 10%에 머물렀다. 軍事的으로 美國은 蘇聯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있는 반면, 經濟的으로도 日本 및 西歐로부터 既存의 優位性을 危脅받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經濟問題는 결국 美國外交政策의 變化를 招來하는데 큰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二重赤字의 幅을 줄이고, 軍事費를 減少하고, 軍縮에의 世界輿論에 副應하고자 美國은 冷戰의 思考에서 脫皮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蘇聯의 경우는 第 2 節에서 後述하기로 한다)

1. 冷戰의 終息 : 몰타會談

改善된 國際環境의 雲圍氣속에서 1989 年 12 月 美國의 부시대통령과 蘇聯의 고르바초프大統領은 歷史的인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다. 同會談은 第 2 次 世界大戰以後 國際政治秩序를 이끌어 온 알타體制가 崩壞되고, 새로운 國際政治體制의 도래를 宣言하였다는 點에서 커다란 意義를 가지고 있다.

世界的인 政治變化에 直面한 美國과 蘇聯은 몰타會談을 통하여 40 여년간에 걸친 冷戰의 終息을 宣言하고 經濟協力 및 軍縮의 새로운 關係樹立을 모색하였다. 同會談에서는 軍縮, 나토·바르샤바기구의 向方, 獨逸統一 및 蘇聯의 經濟改革 등 폭넓은 主題가 議題로

論議된 바, 主要 合意事項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1990年 6月로 豫定된 다음 頂上會談에서 戰略核武器協商(START)을 마무리 짓기 위해 兩國 공히 모든 努力을 기울인다. 둘째, 유럽의 在來武器 減縮協定 조인을 위해 1990年內에 비엔나에서 유럽 23個國 頂上會談을 開催하기로 合意한다. 셋째, 美國은 蘇聯人의 이민쿼타제 廢止 등 蘇聯에 最惠國 待遇를 하며, 兩國은 1990年 6月 次期 頂上會談時 새로운 美·蘇 貿易條約을 체결하기로 合意한다. 넷째, 美國은 蘇聯이 GATT 옵서버 資格을 取得하도록 支援을 보낸다.

以上 合意가 도출된 內容을 살펴보면, 美國이 蘇聯을 經濟的·政治的 同伴者로서 認定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美·蘇間의 相互協力關係가 軍事的 分野, 軍縮에서도 상당한 進展을 보이는 등 美國과 蘇聯은 政治·經濟·軍事的으로 새로운 關係를 定立한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

2. 蘇聯의 新思考外交政策

(1) 蘇聯經濟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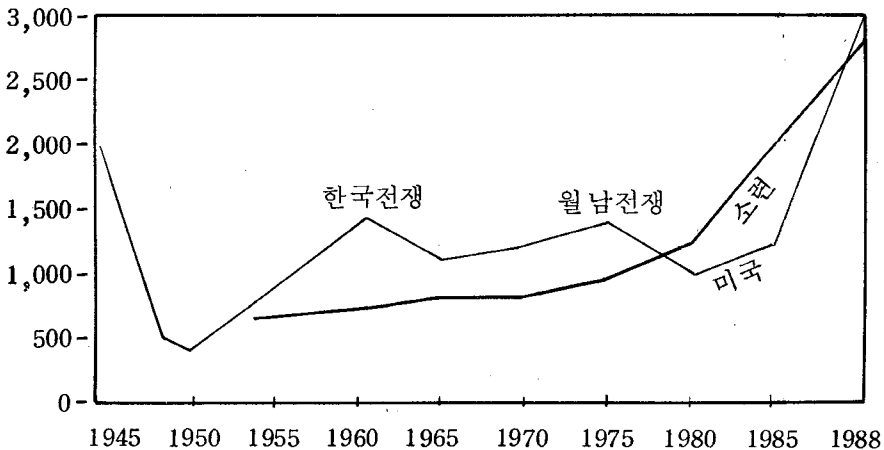
한 國家의 外交政策이 國內 經濟政策과 相互 密接히 聯關되어 있다는 事實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外交政策과 國內經濟狀況과의 連繫性은 그 어느 경우보다도 密接하다.

註 1) Chungwon Choue, "Changing Foreign Policies of the U.S. and the U.S.S.R.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A Paper Presented for the 19th Int'l Conference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l Studies, Sept.3-4, 1990 at Seoul, Korea.

1945年以來 蘇聯은 美國과 마찬가지로 冷戰國際體制下에서 막대한 軍事費²⁾를 支出해 왔으며 이러한 軍事費 支出은 만성적인 財政赤字를 招來하였다. 또한 스탈린時代의 強制的 産業化政策에서 연유한 諸問題의 表面化로 그 심각성은 도를 더하게 된다. 즉 레닌 死後의 權力鬭爭에서 스탈린이 승리하자 新經濟政策이 廢棄되고 強制的 産業化가 急速度로 推進되었다. 이 過程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農民이 희생되고 모든 國民이 暴力危脅을 받고 고통을 겪었으나 1928년부터 1937년까지 比較的 짧은 期間에 蘇聯은 落後된 農業社會로부터 現代화된 産業社會로 탈바꿈을 하였다. 蘇聯의 經濟

註2) 이에 대해서는 다음 圖表를 參考 하라.

〈表 1〉 美蘇軍事支出 (1945 ~ 1988)
(단위: 1975년기준 미화 1억달러)



출처 : Bruce Russett and Bruce Blair eds., Progress in Arms Control? Readings from Scientific American (San Francisco: W.H. Freeman, 1979), p.5. and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Transfers, 1988 (Washington DC, 1989).

開發戰略은 1950, 60年代에도 순탄한 高度成長을 持續함으로써 國民들의 막대한 희생이 보상되고도 남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서 經濟成長은 鈍化되고 1980年代에는 정세현상이 뚜렷해짐과 同時에 그사이 방치해 두었던 諸問題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經濟成長의 停滯, 改善되지 않은 낮은 生活水準과 政治的 抑壓에 대한 國民들의 不滿, 少數民族과의 葛藤, 社會全體의 無氣力 등은 이러한 問題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1985年 고르바초프가 당 서기장직에 올랐을때, 蘇聯은 막대한 財政赤字의 累積, 低下된 生産力, 落後된 消費財產業 및 技術產業의 後進性 등 가히 國內的인 經濟危機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蘇聯의 經濟的 딜레마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強力한 發言은 아마도 1988年 2月 18日 고르바초프가 黨中中委 全體會議에서 행한 연설이라 생각된다. 그는 同演說에서 會議主題인 「教育」과는 無關하게 그의 政治 및 經濟改革을 변호하는 內容을 역설하였는데, 과거 20年동안 蘇聯經濟가 成長을 멈추었다는 점과 石油輸出과 酒類의 國內販賣를 除外하면 事實상 蘇聯經濟는 最近 2~3年동안 마이너스 成長을 했음을 솔직히 言及하였다.³⁾ 實際로 蘇聯이 公式的으로 發表한 NMP (物質純生産)의 增加率도 1950年代의 年平均 增加率 10.1%로부터 1960年代에는 7%, '70年代에는 5.3%, '80年代에는 3%로 持續的으로 下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蘇聯의 經濟가 長期的인 침체에 빠져들었다는 事實은 분명하며, 바로 이 점을 고르바초프를 위시한 蘇聯指導部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註 3) 全國經濟人聯合會 經濟社會開發院(編), 「蘇聯의 經濟開發戰略과 實相」 (서울:全經聯 經社院, 1990), p.226.

것으로 보인다.

蘇聯經濟의 成長率鈍化는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다양한 要因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그리고 複合적으로 作用한 結果이다. 이러한 要因들은 다음 여섯가지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⁴⁾ 첫째, 勞動 및 資本生産性的 減少, 둘째 人口增加率의 減少와 勞動意慾의 減退, 특히 人口增加率의 減少(1960年代 年 1.34%, '70年代 0.92%, '90年代 0.6% 展望)는 長期的인 經濟成長에 必要한 勞動力增加의 減少를 뜻한다. 셋째, 家計의 消費財에 대한 欲求增大이다. 지금까지 消費는 가급적 적으면 바람직한 것이고 消費財의 生産은 언제나 여력이 남으면 이를 확대한다는 政策이었다. 그러나 對外開放과 더불어 西歐의 消費生活에 대한 情報에 接하게 되고,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의 副産物로서 보다 나은 消費生活에 대한 期待上昇이 일게됨으로 一般國民의 消費에 대한 欲求를 繼續하여 억누를 수 없게 된다. 넷째, 蘇聯經濟의 組織, 運營概念 및 制度가 國際經濟와 統合되기 어려운 點이다. 蘇聯이 必要한 海外資本 및 技術을 獲得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企業이 國際市場에서 効果적으로 競爭할 수 있는 製品을 生産하고 이를 販賣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蘇聯의 企業은 上部에서 割當되고 規格화된 製品만을 生産하도록 運營되어 왔고, 市場에서 消費者의 구매력을 놓고서 다른 企業과 競爭해 본 일이 없다. 農業生産의 不振, 1950年代에 年平均增加率 4.8%라는 높은 成長率을 나타냈던 農業은 '60年代에는 3.5%로 低下되고 '70年代에는 마이너스成長을 記錄하였으며 '80年代에 들

註4) 위의 책, pp.260~300.

어와서도 農業은 1.8%内外의 成長을 記錄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經濟의 各部門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한 諸般措置와 政治的 理念間的 조화문제이다.

以上에서 論議된 蘇聯經濟가 안고있는 딜레마의 解決은 결코 단 時間內에 解決될 수 없는데 反해, 現 蘇聯의 政治指導者들은 經濟 發展面에서 보다 가시적인 結果를 보여주어야 하는 壓力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政權의 가장 시급한 課題는 經濟改革의 수행이며, 이의 成功은 보다 平和롭고 安定된 國際環境을 必要로 하게된다. 고르바초프는 國際社會의 多樣성과 多極體制로의 變化를 認定하고 새로운 外交政策을 採擇, 蘇聯의 新思考外交政策의 融通성과 實用성을 레닌以來 가장 뚜렷한 外交革命으로 評價되기에 이르렀다.⁵⁾ 同政策은 1986年 IBM 廢棄의 基本原則에 合意, 1987年 INF條約의 조인 등 美·蘇間에 軍縮協商을 비롯, 政治·經濟的 協力에의 길, 즉 脫冷戰으로의 길을 加速化시킨 結果를 招來하였던 것이다.

(2) 아시아集團安保體制的 失敗

蘇聯의 아시아政策이 具體性·現實성을 띠며 積極化된 時期가 고르바초프의 登場以後라면, 그 始發點 및 원동력은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As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로 보아야 한다. 이같은 脈絡에서 同體制的 特性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첫째, 아시아集團安保體制는 蘇聯의 地域政策으로 유럽安保協力會議 와 密接히 聯關된 構想이다.

同體制가 提案될 수 있었던 背景을 보면 中國의 登場이라는 아

註 5) Time, Dec.11, 1989, p.26.

시아 自體狀況이 重要하게 作用하지만 무엇보다도 蘇聯이 傳統的으로 우선시하였던 유럽의 安定이 아시아에 대한 政策樹立의 기회를 提供해 주었다. 즉 第2次 世界大戰 以後 蘇聯은 유럽에서 現狀의 固定化를 위해 外交的 努力을 기울여 왔는데 이것이 1960年代以來 유럽國家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은 自國 意圖대로 國境線의 確立, 獨逸問題의 解決이 이루어지며 유럽의 政勢가 蘇聯에게 不利하지 않은 狀態로 定着됨을 意味한다. 蘇聯은 유럽의 安定勢를 基盤으로 다른 地域에 關心을 쏟을 여유와 資源을 使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아시아情勢는 西歐勢力의 後退로 蘇聯에게 戰略的 地位의 強化를 可能하게 해주며 中國의 浮上으로 對應政策을 必要로 하는 狀況이었다.

둘째, 아시아集團安保體制는 아시아에서 形成되는 勢力均衡의 變化에 對應하고자 提議된 蘇聯의 構想이다.

第2次 世界大戰以後 아시아는 中蘇블럭과 美同盟體間에 勢力이 대치하는 狀況이었으나 1960年代初를 거치면서 美蘇間 冷戰關係는 서서히 崩壞되기 始作했다. 한때 친숙했던 中國과 蘇聯은 理念的 충돌로 關係가 惡化되고 中·蘇紛爭은 軍事的 충돌로까지 發展하여 九全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에서 中·蘇는 각각 상대를 最大의 적으로 規定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中國이 核武器體制를 發展시키면서 아시아에 새로운 地域勢力으로 登場하게 되자, 이제 아시아는 理念을 中心으로 양분되었던 勢力均衡狀態가 美國·中國 및 蘇聯 3國間의 多變化된 狀況으로 變化되었다.

이러한 變化에 直面한 蘇聯은 自國勢力의 維持 및 增強을 위해 서 아시아에 存在하고 있는 美同盟體의 解體와 아시아國家들에 대

한 中國影響力의 擴散을 防止할 必要가 생겼다. 이에 既存의 美同盟體를 代替할 수 있고 中國의 勢力을 견제할 수 있으며 同時에 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도 增進시킬 수 있는 政策으로서 蘇聯은 아시아集團安保體制를 提案하게 된 것이다.

세째, 아시아集團安保體制는 安保體制로서 아시아化되지 못한 構想이다.

유럽에서 蘇聯은 NATO와 WARSAWA 두 이데올로기적 적대기구를 中心으로 全 유럽安保協力會議를 推進, 參加國의 範圍(美國, 캐나다)와 既存協定の 存續(NATO機構)問題에서 融通성을 보이며 NATO의 反應에 積極적으로 對處하여 1975年 헬싱키에서 그 結實을 보았다. 아시아에서도 蘇聯은 유럽의 安保體制와 유사한 아시아集團安保體制를 提案하여 積極적인 外交活動으로 努力하여 왔다.

그러나 同體制의 內容은 體制的 側面에서 아시아地域에 適合한 形態를 提示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同體制의 成立에 否定的으로 作用하여 成果를 거둘 수 없었다. 이는 특히 體制的 側面에서의 非現實性, 非具體성과 聯關되어 分析될 수 있다.

同體制는 現實的 性格이 弱한 것이었다. 同體制는 1954年 中國의 周恩來가 論議한 아시아 地域國家間 協調增進方案을 目標로 中·蘇紛爭以前까지는 中國과 蘇聯에 의해 合意的으로 推進되었다. 이때는 中國이 보다 積極的이었고 蘇聯은 단순히 同調하였으나, 蘇聯과 中國이 紛爭關係로 發展되자 蘇聯이 中國을 견제하려는 意味에서 獨自적으로 推進시킨 바 있다. 다시말해서 蘇聯은 中·蘇紛爭의 격화와 時期를 같이하여 1969年以來 同體制를 自國 一方에 의하여 推進시켰던 것이나 아시아地域에서는 中國과 關聯하여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첫째, 레닌이래 蘇聯은 유럽勢力인 同時에 아시아勢力임을 주장하여 왔지만 아시아國家들에게는 여전히 아시아勢力으로서 完全히 認識된 狀態는 아닌 것이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中國과의 提携關係가 分裂되는 것은 同地域 國家들에게 더욱 否定的으로 作用하게 된다. 둘째, 中國이 共同提携에서 脫落하여 同體制에 대해 가장 強力한 反발세력으로 돌아섬에 따라 中國의 影響力을 考慮하는 아시아國家들로 하여금 同體制的 參加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아시아集團安保體制的 提案內容도 具體的이지 못하다. 蘇聯은 1969年 처음 提議할 당시 ‘아시아에서도 集團安保體制를 創設하는 問題를 議題化할 事態가 되었다’고만 言及하였을뿐 明示하지 않았으며, 1972~73년에는 10原則의 理念이 그리고 體制的 組織形態에 대하여 活潑한 論議가 展開되었지만 蘇聯이 提案하는 體制가 分明하게 提示되어 있지는 못했다. 여러가지 資料에 비추어 볼때, 同體制的 形態는 유럽의 境遇처럼 全아시아國家들이 參與하는 會議를 開催하고 여기에서 文書를 採擇하는 方式을 追求하는 것으로 보인다. 中國과의 關係를 考慮해 볼때도 아시아地域國家들의 參加를 위해서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的 確實한 根據와 內容에 대하여 충분한 納得이 必要한데도 아시아國家들에게 內容, 特히 參加國의 範圍(美國의 參加與否 問題 등) 그리고 既存軍事協定과의 關係에 대해서도 具體的이고 公式的인 說明을 提供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시아集團安保體制的 達成에 결정적인 障礙要素가 되고있는 것이다.

體制的 側面에서 參加國의 範圍를 全아시아國家로 言及하고 있지만, 分斷國의 경우 蘇聯이 어느 一方만을 認定할 때 나머지는 國家로 認定되지 못하므로 參加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蘇聯이 意

圖하는 現狀의 固定化를 위해서는 分斷國 雙方이 參與해야만 하는 現實과의 상충현상도 問題가 되고, 아시아集團安保體제의 成立을 위해서는 美國의 參與를 要求하는 아시아國家들, 특히 日本의 態度를 考慮할 때도 이러한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은 아시아地域에서 美國의 勢力弱化를 계기로 自國의 戰略的 地位를 強化시키려는 意圖下에 아시아地域國家들과 美國이 맺고있는 既存軍事協定을 廢棄시켜 아시아國家들과 西歐와의 連繫를 減少시키려는 目的도 現實的으로 아시아地域國家들로부터 好應을 얻지 못한 것이다. 結果的으로 同體制에 대하여 贊成의 뜻을 表示한 國家는 인도, 몽고, 이란, 방글라데시에 불과하며, 中國, 日本,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反對하였으며, 北韓이나 인도차이나 3國같은 社會主義國家들도 公式的인 지지를 유보한 바 있다.

아시아集團安保體제가 아시아地域에 適合하지 않은 非現實的이며 非具體的인 內容提示에 그쳤다는 것은 결국 아시아에서 蘇聯이 主導하는 安保體제가 아시아화에 失敗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그러면 同體制의 失敗는 長期的인 안목에서 볼때 蘇聯의 아시아政策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당시의 否定的인 反應에도 불구하고 對아시아外交에 있어 長期的인 안목에서 外交的 利益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蘇聯은 同體制의 提案을 前後로 아시아國家들에 대하여 活潑하고 積極的인 外交活動을 벌이게 되었다. 軍事·經濟的 원조, 사절단·代表團의 派遣과 首腦級 人士들의 招請 및 訪問, 그리고 條約과 協定의 체결 등 外交的 成果를 거두었다. 蘇聯은 아시아에서 自國의 影響力을 넓히기 위해 同地域國家들과의 關係增進을 추구해 왔으며 아시아集

團安保體制的 提案을 통하여 蘇聯은 外交活動을 통해 아시아國家들과 戰略的인 이해관계에 대해 意見을 交換하게 되었고, 우호적인 關係를 增進시킬 수 있는 기회를 獲得하게 되었다. 同體制의 提案을 통해 蘇聯은 自國에 대한 아시아國家들의 認識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蘇聯은 아시아地域에서 安全保障을 強化할 수 있도록 勢力擴充을 強化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結果的으로 아시아集團安保體制는 短期的으로는 實現되지 못한 失敗한 構想이었으나, 長期的 안목에서 볼때는 아시아進出에의 교두보 役割을 遂行, 고르바초프의 登場과 더불어 蘇聯의 아시아政策은 새로운 轉換點을 맞게 된다.

(3) 아시아地域 國際關係의 特徵

아시아集團安保體制의 失敗가 말해주듯이 아시아는 유럽의 地域의 特性과는 매우 상이한 面을 지니고 있다. 1980年代 世界的 脫冷戰傾向과의 關聯下에 아시아地域 國際關係의 主要 特徵들은 다음과 같이 指摘할 수 있다.

첫째, 安保利益의 多樣化

아시아地域國家들의 戰略的 環境은 유럽의 國家들과 實質的으로 相異하다. 우선, 유럽에서는 나토와 바르샤바條約機構 會員國들이 직접 대치하고 있고 서로를 窮極的인 危險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아시아國家들은 무엇이 주요한 危脅이고 國家安保를 어찌해야 하는가에 對하여 훨씬 多樣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 同地域의 非共產國家들 사이에 美國과 日本만이 蘇聯을 主要한 危

脅으로 간주하는 반면, 南韓을 포함한 아세안國家들은 北韓, 베트남, 中國 그리고 國內 게릴라活動을 主要한 危脅으로 보고 있다. 同地域國家들간에 美國과의 安保關係가 基本的으로 나토와 같은 集團安保機構와는 달리 兩者同盟에 입각해 있다는 事實이 그와같은 安保利益의 多樣化的 結果이다.

둘째, 東西葛藤에 있어 東北亞의 戰略的 重要性的 增大

2次大戰後 東西對立의 主要舞臺는 유럽이었고, 아시아地域에는 2次的인 重要性이 賦與되었을 뿐이다. 事實상 蘇聯住民의 80%가 우랄山脈 西쪽에 居住하고 있고 거기에 國家經濟活動의 대부분이 集中되어 있다. 시베리아, 특히 東半部는 人口도 적고 社會間接資本도 미약한 채 황량한 冷土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므로 蘇聯의 과거 軍事的인 構築은 유럽쪽에 集中되어 있었다. 1960年代 中半以後로 中蘇國境, 極東의 시베리아 및 北西太平洋地域에 蘇聯이 軍備를 大幅 強化해 왔음은 사실이나, 西方에 비해 在來武器의 우월성을 確立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SLBM의 공격범위 擴大의 結果로 蘇聯은 오흐츠크海에 숨긴 SSBN으로부터 主要 美國都市로 그들의 SLBM을 나를수 있는 能力을 갖게 되었다. SLBM은 쉽게 숨겨지고 적의 1次攻擊을 견디낼 수 있기때문에 보복적 2次攻擊手段으로서의 戰略的 價値가 대단히 높다. 이같은 理由로 1970年代以來로 발렌즈海와 함께 오흐츠크海가 蘇聯의 두 SLBM 海洋基地의 하나가 되었다.

셋째, 經濟發展과 새로운 地域協力

1960年代까지 産業化에 成功한 東아시아國家는 日本뿐이었으나, 1980年代末頃 世界經濟에서 東아시아가 차지하는 位置는 거의 革

命的 變化를 겪었다. 20 年內에 日本은 가장 큰 貿易黑字를 지닌 世界最高의 債權國으로 자라났다. 또한 韓國과 臺灣과 같은 新興工業國들도 일부 共產品分野에서 西歐를 危脅할 정도의 發展段階에 도달했다. 나아가 아세안國家들은 다른 地域의 開發途上國들보다 높은 成長率을 記錄하고 있다.

東아시아에서의 이러한 經濟發展은 同地域內 貿易과 投資活動의 持續的인 成長을 가져왔다. 1960 年代末以來 아세안이 組織되었고 다른 多様な 太平洋地域協力體가 形成되어 왔다.

네째, 東아시아 共產國家들의 침체와 새로운 政策方向

1960 年代初까지 日本을 除外하고는 共產體制가 經濟發展 遂行에 있어 非共產國家들을 앞지르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지난 20 年間은 정반대의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新興工業國들과 아세안國家들이 상당한 發展을 성취한데 반해, 中國, 北韓, 인도차이나 3 國의 經濟成長은 침체한 체로 남아 있었다. 經濟發展을 놓고 벌인 公開競爭에서 共產體制는 決定的 패배를 맞본 것이다.

이에 따른 政策轉換中 가장 눈에 띄는 것은 中國의 境遇이다. 文化大革命期の 混亂을 克服한 以後로 中國은 共產國家의 基準으로는 대단히 과감하게 外部世界에의 門戶開放, 經濟生活에의 市場메카니즘의 導入 등 새로운 政策을 시도해 온바 있다. 물론 中國의 開放政策의 장래는 어려움으로 가득차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經濟改革도 政治的 民主化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屈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中國이 아직도 오랫동안 內政에 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中國이 가까운 將來에 아시아 新興工業國에 強力한 競爭者로 대두하지는 않을 것임을 意味한다.

Ⅲ. 蘇聯의 對東北亞 政策轉換

1. 아시아政策 基本路線

周知하다시피, 1986年 7月 28日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演說을 통하여 蘇聯이 아시아勢力임을 闡明하며 새로운 아시아政策을 구체화시킨 바 있다. 1960年代에는 軍事的 膨脹主義를 통해 亞·太地域에서 軍事的 優位の 占有를 아시아政策의 目標로 삼았던 蘇聯이 이제는 政治·經濟·軍事 등 諸側面에서 아시아地域 國家들과의 協力關係를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蘇聯의 對外政策에서 아시아地域이 높은 우선순위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1986年 7月 28日 블라디보스톡演說에 다음과 같이 明示되고 있다.⁶⁾

“우랄의 東部, 아시아에는 - 시베리아, 極東 - 우리 領土의 가장 큰 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黨大會가 규정한 全國家的 性格의 많은 課題가 해결될 곳이 바로 거기이다. 따라서 우리 國民과 선원들이 수세기동안 살아 온 極東全地域, 아시아 및 隣接 海洋地域에서의 狀況은 國民的·國家的 關心事이다.

…… 蘇聯은 또한 아시아國家이자 太平洋地帶의 一國이다. 그 광활한 地域의 복잡한 問題는 蘇聯과 關係있다. 그 問

註6) Edward Halizak, "The Pacific Region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Soviet Union," Studies on the Developing Countries, No. 4, 1988, pp. 121 ~ 22.

題들은 蘇聯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 모두는 蘇聯이 다양한 國家 및 民族이 집중되어 있는 그 世界의 巨大한 一部라는 均衡된 見解를 갖게 한다. 同地域에의 接近樣式은 그 곳에서 實體를 認定하고 理解하는데 그 根本을 두고 있다.”

蘇聯은 블라디보스톡宣言以後 곧 이어 1988年의 크라스노야르스크宣言 및 UN演說을 통하여 對아시아 政策은 그 基本路線의 性格을 명확히 나타나게 된다.

아시아 安保問題와 亞·太포럼의 開催를 위해 蘇聯이 提示한 광범위한 提案內容들은 向後 亞·太포럼의 開催可能에 必要한 여러 諸般措置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블럭 政策의 脫皮와 緊張緩和를 위한 代案策이며, 다음 3가지 路線으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國家間 關係의 壁을 除去하고 相互理解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政治思考의 精神 즉, 武力이나 威脅없이 그리고 政治的 方法, 政治的 妥協에 의해 國家關係의 難題들(역사적인 論爭, 國境紛爭 등)이 해결되어야 하며 貿易·經濟·文化的 交流가 增進되어야 한다.

蘇聯은 모든 國家들과 善隣關係 樹立을 위해 努力을 倍加, 兩者關係를 漸進的으로 改善시키고 있다.

비록 美國이 蘇聯의 新思考의 提案을 가시적인 관심없이 간주해 왔고, 아시아地域의 安保問題에 관한 한 美國이 우세한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더라도, 美·蘇關係는 여러 分野에서 상당한 進전을 보이고 있다.

蘇聯과 中國關係도 正常化되었다. 1989年 5月 고르바초프의 中國訪問동안 이는 兩側에 의해 확인되었다. 中·蘇關係의 正常化가 兩國關係뿐만 아니라 아시아地域의 安定과 平和에 얼마나 重要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再論할 여지가 없다.

또한 蘇聯과 非同盟國의 거두인 印度와의 關係도 協力에의 길로 들어섰다. 兩國이 1986年 11月 27日 非暴力世界 및 核武器廢止原則에 관한 宣言文에 調印했다는 事實은 蘇聯과 印度간에 友好關係가 樹立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社會·政治體制가 다른 國家들간에 平和共存關係의 樹立 및 平和·安保 強化를 위한 共同努力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蘇聯과 日本關係는 부침을 거듭해 왔다. 최근 몇년간 日·蘇關係는 冷戰의 기류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1986年 日本은 美國의 “별들의 戰爭” 프로그램에 合勢하여 美國과의 軍事行動에 段階적으로 參與하고 있다. 日本의 支配層 가운데에는 地方領土問題의 해결을 위해 蘇聯에 壓力을 가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는 크라스노야르스크宣言에서 蘇聯의 指導者가 日蘇關係의 해결을 위해 열성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지난 2年 동안 政府水準에서의 兩國對話가 促進되었다. 이에 많은 專門家들은 고르바초프의 日本訪問이 兩國關係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둘째, 蘇聯은 地域葛藤의 해결은 世界的 相互依存과 統合의 論理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主張한다. 곧 그러한 問題는 協商, 獨立尊重, 領土保全, 平等性 및 國內問題 不干涉에 기초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地域水準에서의 모든 紛爭 즉, 中東紛爭,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事態, 宗教紛爭 등에 해당된다.

세계, 蘇聯도 아시아政策의 主要路線으로 對決의 解消, 軍事活動의 減少, 地上軍 및 軍備의 減縮, 平和地帶의 設置 및 信賴措置의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蘇聯은 아시아地域에서 核武器 擴散을 방지하려는 立場을 견지, 1987年 12月の 美·蘇條約에 따라 中距離미사일을 廢棄하기로 同意하였다. 또한 海軍活動의 制限 및 機動訓練의 減少 등을 提案하였으며 西太平洋의 非核化主張을 환영한 바 있다.

以上 3가지 基本路線은 결국 아시아의 平和와 安保問題를 論議할 아시아포럼의 開催로 集約된다.

2. 아시아地域內國家들과의 關係增進

蘇聯의 新思考는 國際關係에서 새로운 體制 즉, 平等性, 相互互惠, 主權尊重, 國內問題 不干涉 및 對內的 政策決定時 各國의 完全한 獨立權의 認定, 信賴 및 開放에 기초하여 國家間的 關係를 규정짓는 體制에로 그 강조점을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蘇聯은 政府首腦들의 회동을 비롯한 모든 水準에서 아시아地域 國家들과 兩者的 政治對話意志를 強化시켰다. 同地域國家 指導者들의 蘇聯訪問 및 蘇聯官吏들의 아시아國家訪問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이처럼 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가 보다 활성화되고 실체화됨에 따라서, 協力樣相은 文化·體育·學問 分野뿐만 아니라 政治·經濟分野에로 좀더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다.

蘇聯과 中國과의 關係는 1980年代 중반이래 상당한 변화를 맞

이한다.

1985年 3月 蘇聯은 公式的으로 처음 中國을 社會主義國家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中國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肯定的으로 인식하며 中國과 蘇聯이 經濟·社會的 再組織을 통해 해결해야 될 公同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中蘇關係發展의 一대 전환점은 1989年 고르바초프의 中國訪問과 李鵬의 蘇聯訪問으로, 兩國은 國家와 黨 水準에서 完전한 關係正常化를 이루었다. 武器 및 兵力減縮이 論議되었고, 經濟·社會·科學·技術·文化 및 其他 分野에서 協力條約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이는 國際關係의 脫이데올로기化原則을 인정하며 階級利益이 아닌 國家的 利害關係의 均衡에 따라 善隣關係를 樹立하는 새로운 接近樣式을 보여준다. 또한 東北亞에서의 緊張減少에 重要 役割을 하며 淸푸치아·韓半島問題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意義가 있다.

1985年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래 蘇聯과 日本間의 關係는 漸進的인 發展樣相을 보이고 있다.

日蘇關係發展의 重要動因은 外務長官들의 相互訪問期間(1988年 12月 세바르드나제의 東京訪問: 1989年 우노의 모스크바訪問)동안 造成되었다. 이들은 會談을 통하여 兩國 關係改善 意志를 相互 確認하고 文化條約 및 二重課稅防止協定을 締結하였다.

蘇聯과 東北亞 國家들과의 關係再定立중에서 가장 새롭고 의미심장한 것은 아마도 韓國과의 급격한 關係發展일 것이다. 韓蘇關係는 貿易·經濟·科學·文化部門에서 급격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數年前만 하더라도 이같은 사태는 예견할 수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서울에 각각 영사처가 설치되어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蘇聯邦商議 및 KOTRA事務所가 서울과 모스크바에 개설되었다. 1990年 6月 5日에는 역사적인 韓蘇頂上會談이 개최되어, 兩國間 經濟·文化的 交流에 相互 關心을 표명하며 10月 1日에 外交關係의 正常化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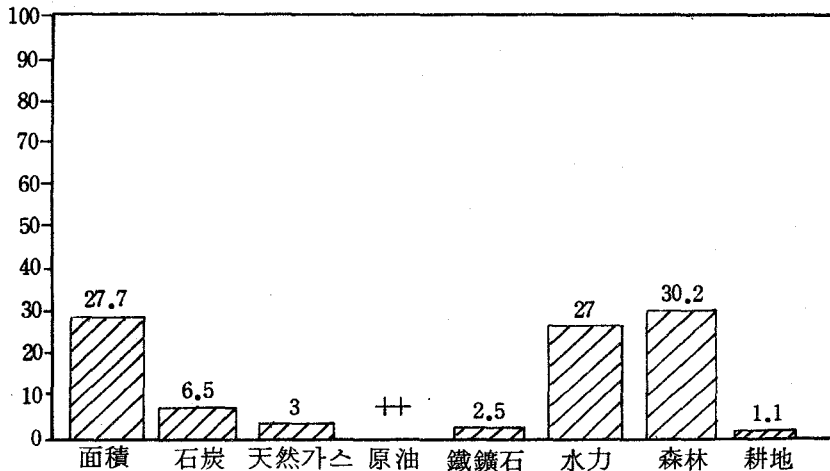
3. 시베리아 開發計劃

여기서 包括하는 地域은 東·西시베리아 및 極東地域 즉, 하바로브스크地方, 블라디보스톡 沿海州地方, 아무르·사할린·캄차카·마가단州, 야쿠트 自治共和國을 포함한다.

同地域은 풍부한 天然資源⁷⁾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蘇聯의 中心部

註 7) 다음 도표를 참고하라.

〈表 2〉 極東이 全 蘇聯에서 占하는 天然資源의 割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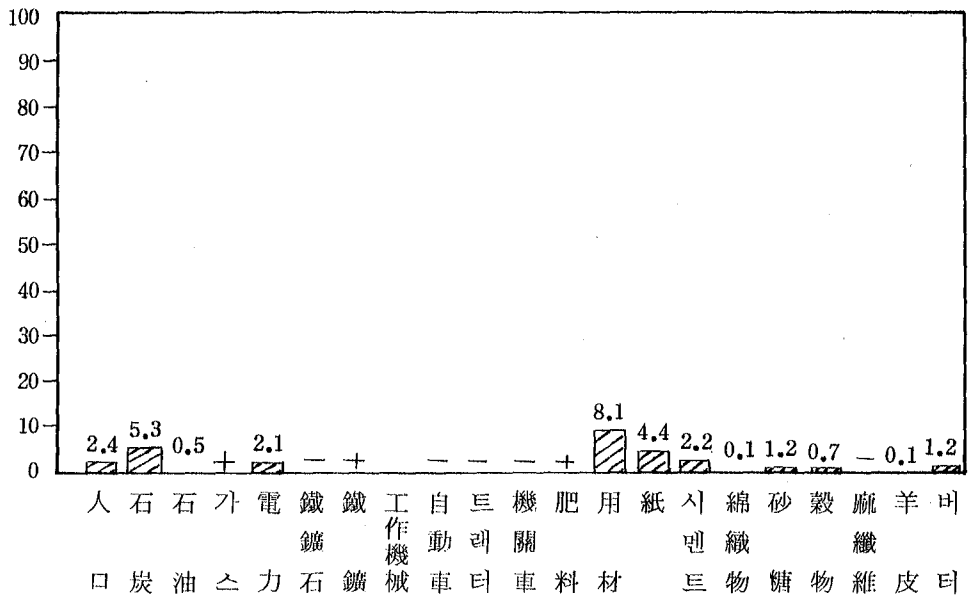
(註) ++ 域內的 價値가 있는 資源量
 (出典) K. F. STROEB, “經濟地理”(모스크바, 1988)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地理的 條件과 自然災害, 勞動力 不足 등으로 인하여 中央地域에 比較하여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漁業, 水産業, 農林業을 中心으로 한 勞働集約的인 1次産業, 石炭工業 등이 비교적 많이 발달하고 있을 뿐, 基礎構造에 대한 投資不足으로 電力이나 鐵鋼, 石油 등의 資本集約的인 産業의 발달이 뒤떨어져 장래 極東地域 開發의 重要性을 감안할 때 이러한 産業으로서의 集中投資가 要求되고 있다.

그런데 蘇聯은 1986年 7月 블라디보스톡演說에서 電力, 非鐵金屬, 鐵鋼, 石炭, 水産物, 木材, 쌀 및 콩의 增産과 住宅, 農村整備, 樹種改善에 관한 對策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極東經濟의 發展計劃에

註7) 繼續

〈表 3〉 極東의 生産寄與率(全蘇聯=100, 1970年代 中半)



(註) - 生産量이 조금밖에 存在하지 않는다.

+ 生産이 행해지고 있다.

(出典) 〈表 2〉와 같다.

綜合的인 方向을 提示한 바 있다. 豊富한 天然資源의 劃期的인 開發과 沿海州開發을 위한 貿易輸出體制 強化를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1987年 8月에는 “2千年까지의 極東經濟地域, 브라르自治共和國, 치타州的 生産力 綜合發展 國家長期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蘇聯은 現在 經濟發展의 시급한 課題와 可視的 結果의 未洽으로 相當한 곤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 시베리아開發은 國家經濟에서 어떠한 役割을 맡고 있으며 그 重要度는 어떠한가?

政治局員中 한 사람인 보로트니코프(V. I. Vorotnikov)에 따르면, 시베리아經濟開發은 國家的 重要性的 第1順位の 課題라고 한다.⁸⁾ 그는 蘇聯 西部地域의 에너지資源을 고갈시킨 결과 蘇聯은 심각한 燃料 부족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同問題의 해결을 위해서는 地域産業의 增進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關聯産業分野는 原油精製, 鑛山, 製造, 交通部門을 망라하며 시베리아地域은 에너지 倉庫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증대된다.

시베리아 특히, 東시베리아와 極東地域이 主要 에너지資源의 開發 및 供給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重要的 이유중의 하나는 長期的인 對策없이 유럽地域의 資源을 고갈시킨데에 있다. 西시베리아는 世界 最大規模의 가스가 埋藏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고, 바이칼호는 世界의 新鮮한 물중 $\frac{1}{5}$ 에 해당하는 양을 포함하고 있다. 그외에도, 우랄의 鐵金屬, 東시베리아의 다이아몬드, 鐵金屬 및 非鐵

註 8) Byung Ki Kim, "The Problems and Prospects of the Soviet Economy in the 90's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Case of Siberian Labor Turnover." A Paper Presented at the 1st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lavic Studies at Seoul, Korea, Mar. 11, 1989.

金屬, 雲母, 석면, 화석 그리고 트랜스바이칼의 텅스텐 등⁹⁾은 蘇聯 經濟 活性化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世界에서도 戰略的으로 重要的 經濟的 潛在力을 갖게 할만하다고 分析된다.

더구나, 시베리아는 豊富하고 多樣的 天然資源을 가지고 蘇聯의 重要한 產業的 要求에 副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地質學的 要因으로 인해 가장 効率的인 方法으로 資源을 추출, 加工할 수 있다. 따라서 生産性 增加라는 當面課題에 부딪힌 蘇聯 指導者들에게 시베리아開發問題가 主要 關心事로 부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베리아開發計劃은 經濟的 重要性만을 지닌 것인가? 이데올로기적·地政學的 重要性도 지니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적 必要性이란 “中心”과 “ 주변부 ”간의 均衡된 발전이라는 면에서 시베리아地域의 特化가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地政學的 要求란

註 9) 極東地域의 豊富한 天然資源은 계속해서 발굴조사중에 있고, 크게 鑛物資源, 農業資源, 密林資源, 에너지資源 등으로 나누어 그 地理的인 所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表 4〉 極東地方의 品目別 比率

(單位: %)

| | | 極東地方 | 西시베리아 | 東시베리아 |
|---|----|------|-------|-------|
| 石 | 炭 | 5.3 | 18.4 | 8.5 |
| 石 | 油 | 0.5 | 25.0 | — |
| 가 | 스 | + | — | 10.3 |
| 電 | 力 | 2.1 | 6.4 | 9.9 |
| 鐵 | 鑛石 | — | 2.3 | 5.6 |
| | 鋼 | + | 8.6 | + |
| 木 | 材 | 8.1 | 8.5 | 18.6 |
| | 紙 | 4.4 | — | 2.6 |
| 穀 | 物 | 0.7 | 5.3 | 2.4 |
| 人 | 口 | 2.4 | 5.0 | 3.1 |

資料: 日本 蘇聯極東總覽

특히 中國에 대한 蘇聯의 安保利害關係와 관련된다. 安保의 側面에서 시베리아開發의 의미는 交通 및 通信網을 構築함으로써 戰略적으로 重要的한 시베리아橫斷鐵道の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人口分散 및 社會構造의 再確立을 통해 地域安保의 깊이를 가할 수 있다는데에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蘇聯의 시베리아開發計劃을 살펴보기로 하자.

1986年 3月 經濟成長의 加速化를 위한 基本指針에서 ‘시베리아의 經濟發展을 加速化’할 의지를 거듭 표명한 가운데 주로 연료와 動力 生産能力 擴張, 鑛物과 林産資源 加工擴大, 電力消費가 높은 工業油脂, 製造工業, 특히 機械製作工業의 均衡있는 發展措置를 취할 것을 主要施策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西部시베리아에서는 燃料生産基地 發展, 石油 및 天然가스 探查擴大, 쿠즈네츠크 및 칸스크-아친스크 動力基地 發展을 促求하고 있다. 東部시베리아에서는 地域內 電力生産을 바탕으로 한 사얀工業基地 竣工, 사얀 알루미늄工場 建設促進, 바이칼-아무르 幹線鐵道 隣接地域의 開發, 南部야쿠치야 연료기지 建設을 들고 있다. 끝으로 蘇聯 極東地方에서는 非鐵金屬 및 貴金屬의 採掘과 燃料動力開發事業 推進, 漁業發展 등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86年 7月 極東地域을 처음으로 시찰하던중 블라디보스톡演說에서 過去 20年間の 實績은 生産能力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全國 平均水準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하고, 極東經濟의 發展計劃에 대하여 綜合的인 方向을 提示하였다. 여기에서 새로이 강조한 內容을 보면,¹⁰⁾

註 10) 李惠英, “蘇聯의 極東地域: 天然資源과 蘇聯의 開發計劃 그리고 韓國의 對應,” 「蘇聯研究」, 創刊號, 1990年 2月, pp. 75~6.

- ① 沿岸施設 整備의 時急
- ② 非鐵金屬, 貴金屬 採掘 擴大
- ③ 木材加工度 提高
- ④ 에너지 (石油) 生産 增加
- ⑤ 建設能力 輸送力 強化
- ⑥ 專門的 機械工業 設置
- ⑦ 沿岸國境貿易 活性化
- ⑧ 合作企業 導入, 輸出基盤 強化
- ⑨ 衣食 및 消費物資 供給, 勞動力 定着
- ⑩ 國際觀光 據點化 등이다.

그후 極東의 開發을 위하여 1987~2000년까지 極東經濟區 및 브리아트自治共和國·치타州 등을 對象으로 하는 計劃이 채택되었고,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¹⁾

- ① 이 計劃期間중의 投資規模는 2,300億루블로 한다.
- ② 工業生産高는 1985年의 2.5倍 擴大, 發電量은 1,000億Kwh, 石油는 사할린地方에서 7,000萬~8,000萬屯, 天然가스는 130~150億 m^3 , 石炭은 2000년까지 1.6배, 採取量은 8,200~8,500萬屯을 增加시킬 計劃이다. 電力의 中心은 水力發電으로 약 1,000億Kwh, 鐵鋼은 2000년까지 300萬屯의 製鐵所를 建設하고 機械産業은 3.9倍로 增加시킨다.
- ③ 基礎構造의 整備로 住宅을 2000년까지 21倍, 普通教育學校建設 2.4倍, 病院 2倍 등 其他施設에 投資를 擴大시킨다.

註 11) 上揭論文

- ④ 輸出入의 均衡을 위하여 輸出高를 1986~2000년까지 3倍로 增加시킨다.
- ⑤ 農業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食糧을 自給自足한다.
- ⑥ 林業은 풍부한 木材資源을 이용하여 木材加工業을 育成하고 2000년까지의 伐木 目標量을 3,800萬 m^3 로 한다.
- ⑦ 漁業部門에서 漁獲量을 1985年の 1.3배인 520萬噸으로 擴大하여 魚類의 大規模的인 海洋工場을 建設할 計劃이다.
- ⑧ 특히 이 計劃에서 BAM鐵道地帶의 經濟開發에 重點이 두어지고 있다. BAM이란 바이칼, 아무르, 마기스트랄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21世紀 最大의 建設計劃중의 하나가 BAM鐵道 建設工事的 再開라고 할 수 있다. 同鐵道가 통과하는 東시베리아 및 極東地域의 近北地域에는 많은 종류의 풍부한 天然資源이 거의 손도 못된채 매장되어 있으나, 周邊地域의 開發은 他地域보다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BAM鐵道の 開通에 의하여 資源의 大規模的인 開發이 促進되고 鐵道 周邊地域의 社會·文化的인 發展의 기대로 2000년까지의 極東綜合計劃에서 BAM鐵道 周邊地域 開發에 의한 輸送力의 增強과 工業의 發展을 計劃하고 있다. 1989年 7月 BAM鐵道の 全線開通이 실현되어 어떠한 氣候, 自然, 地質條件에도 運營할 수 있는 總延長 5,000km의 線路와 總延長 約 30 km의 터널, 4,000여개의 철교, 고가교 기타 工業施設이 建設되었다.

以上과 같은 蘇聯 極東地域의 綜合的인 開發計劃은 다른 地域보다 뒤떨어져 있는 極東의 經濟를 全國 平均으로 끌어올리고, 앞으

로 太平洋時代를 향한 새로운 貿易의 거점으로서 太平洋經濟圈國家와의 國際分業體系를 構築하려는 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蘇聯經濟의 發展에는 先進國들의 資本 및 技術이 要求되듯이, 極東地域의 開發에도 外國資本 및 技術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1988年 9月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演說한 고르바초프는 極東地域의 對外經濟 體制로서 國境地帶에 자유로운 活動地帶를 設置하여 隣近國家와 共同으로 合作企業을 設立하는 광범위한 經濟關係의 發展을 促進시키고, 合作企業을 위하여 極東地域內에 特惠待遇를 부여하는 政策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外國企業에 대한 特惠待遇와 自由經濟特區의 設치가 바로 外國資本 및 技術의 유인책으로 제시된 바, 그 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蘇聯이 提示한 “特惠待遇”란 3년까지 稅金을 免除하고 合作企業의 收益에 대한 稅金은 10%로 引下한다는 內容과 또한 外國의 投資家들이 이러한 企業의 收益을 自國으로 送金할 경우에 稅金은 引下되든지 일정기간 徵收되지 않는다는 內容을 主骨子로 한다. 蘇聯은 이것이 極東地域에서의 合作企業活動을 자극하고 外國會社뿐만 아니라 蘇聯企業의 社會開發에 대한 關心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自由經濟特區”의 設치는 地域經濟가 中央豫算에서 가능한 한 부담을 갖지 않고 同時에 다른 國家나 國民經濟와의 經濟的인 協同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進出, 보다 높은 經濟社會發展의 水準으로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合作企業地帶”를 말한다. 極東의 經濟特區 設置에 의한 合作事業은 現在 資源의 輸出에만 의존하고 있는 後進性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資源의 輸出을 制限하고

合作을 통하여 先進國으로부터 産業技術을 導入, 國內에 必要한 生活必須品の 自給과 資源을 加工 輸出하려는 方針이다.

이러한 經濟特區 設置의 最適地로서 蘇聯은 3個市 즉, 핀란드 接境의 빌보르크, 레닌그라드 周邊의 노브고로드, 極東 沿海州地域의 나훗카를 지정하였다. 특히 現在 太平洋貿易의 中心港으로, 極東의 合作投資事業地帶로 有望한 나훗카는 100% 外國人 投資의 許容과 이 地域 進出企業에 대하여 50年에서 100年미만의 범위로 土地의 長期使用權 認定, 研究所나 호텔 등 시설의 賃貸와 關稅輕減 등의 特惠待遇로 投資條件이 좋은 地域이다. 여기에 美國, 韓國, 日本, 中國 등 여러나라에서 關心을 보이고 있고, 韓國의 現代그룹도 經濟特區地域의 나훗카에 合作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또한 蘇聯은 極東 開放經濟의 일환으로서 1989年 2月 沿海州地域을 外國人 狩獵地域으로 開放하였다.

이와같은 誘因策에 힘입어 蘇聯은 極東地域에서 外國企業과의 合作投資部門에서 顕저한 進出을 보이게 된다. 그 예로 시베리아橫斷 光케이블 (TSL) 建設事業을 살펴보기로 하자.

韓國通信公社는 1990年 7月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蘇聯 光케이블開發管理委員會 (TSL-DC)에 參席, 蘇聯 (MPT), 美國 (US-WEST), 英國 (BT), 日本 (KDD), 이탈리아, 덴마크, 호주, 西獨 (DBP), 프랑스 (FT) 등 總 10個國 11個 通信業者와 함께 TSL 建設 參加協定書에 署名하였음을 밝혔다.¹²⁾

모스크바에서 나훗카를 경유 유럽에 이르는 總延長 14,000 km, 總

註 12) 「韓國經濟新聞」, 1990年 7月 25日.

所要額 5 億달러에 이르는 TSL 建設事業은 모두 4 區間으로 나누어져 工事는 1991 年初 着工, 1·2·3 區間은 1992 年末, 4 區間은 1994 ~ 95 年頃에 完工을 目標로 하고 있다.

1 區間 (SEG-1) 은 덴마크~모스크바, 2 區間 (SEG-2) 은 이탈리아~모스크바, 3 區間 (SEG-3) 은 모스크바~나훗카, 4 區間 (SEG-4) 은 나훗카~韓國~日本間으로 決定되어 있다. 4 구간은 당초 나훗카~하마다 (日本) 間에 直通回線으로 建設될 豫定이었으나 蘇聯이 韓國의 參與를 希望, 韓國 및 日本으로 分岐建設기로 결정되었다. 韓日 兩國의 分기점은 울릉도앞바다 100~150 km 지점이며 韓國의 연결회선은 여기서 울릉도를 거쳐 동해안 陸地로 연결될 豫정이다. 各區間別 建設費는 1 區間 5,600 萬달러, 2 區間 8,000 萬달러, 3 區間 2 億 9,900 萬달러, 4 區間 4,700 萬달러가 所要될 것으로 豫상된다.

4. 地域的 軍縮

美·蘇間의 軍縮協商은 그 영향이 아시아地域으로도 파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地域強大國인 中國과의 고려하에 軍縮提議가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地域에서 蘇聯의 軍事力 增強은 1960 年代 中盤에 시작, 1970 年代에는 蘇聯의 아시아駐屯軍의 數가 100 萬名을 넘어섰으며, 1978 年 베트남의 캄보디아占領時 베트남을 支援한 댓가로 淸蘭만을 獲得함으로 地上軍 및 地上飛行場面에서 優越性を 占有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蘇聯은 아시아地域에서 일방적인 減縮宣稱을 하기에 이른다.

蘇聯은 INF條約의 脈絡에서 蘇聯의 아시아地域에서 中·短距離 미사일의 廢棄를 決定, 약 436개의 미사일이 廢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9~90年內에 蘇聯 東部に 배치된 蘇聯兵力이 약 2萬名(極東地域 駐屯軍 1萬2,000名 포함) 減縮될 것이며 地上軍 12個部隊, 空軍 11聯隊, 太平洋船團中 16척의 함대가 減縮기로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몇년내에 中蘇國境地帶에서의 軍事對決水準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中國訪問동안 蘇聯은 中國과 軍事力の 강도를 최소한도로 줄이기로 원칙상 합의를 보았으며 이 目的을 위해 특별한 協商機構를 樹立하기로 同意한 바 있다.

1989年 5月 蘇聯은 다시 蒙古로부터 自國 駐屯軍을 撤收시키기로 決定, 1990年까지 地上軍 3個部隊(2개 탱크部隊 包含) 및 全 空軍力の 撤收가 實行에 옮겨지리라 보여진다.

IV. 4 强構造의 新力學關係와 韓半島

1. 蘇聯과 美·中·日

새로운 國際體制의 出現과 東北亞의 新國際環境은 同地域과 直·間接적으로 利害關係가 있는 蘇聯, 美國, 中國, 日本間의 關係를 세로이 정립시켰다. 冷戰國際體制下的 1960年代에는 中·蘇同盟關係와 美·日安保協力關係로 兩分, 서로 대치관계에 있었으나, 1970年代에 들어서자 中·蘇紛爭에 연유하여 美國, 中國, 日本이 共同反蘇路線을 펴게 되었다. 그러나 1980年代 중반이후 蘇聯은 新思考 外交政策의 실행을 통해 새로운 4强關係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美·蘇, 中·蘇, 日·蘇關係로 세분하여 4强構造를 分析하기로 한다.

美國은 아시아地域에서 전통적으로 우세한 地位를 점하고 있다. 이는 軍事·經濟·文化 등 제반 分野에서 영향력이 強하다는 것으로 同地域國家들은 美國과 同盟·友好條約을 체결, 그 存在안에서 이해關係를 공유하였던 것이다. 反面 蘇聯은 단지 軍事的 強大國이었을 뿐이다. 自國安保에 대한 위협의 存在라는 측면에서 蘇聯의 政策은 주시의 대상이었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善隣關係에 있지 못했으며 많은 影響力에도 불구하고 政治的인 고립을 면하지 못하였다. 특히 1970年代에 아시아地域에 SS-20 미사일을 배치하고,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으며,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을 지지하였다는 것은 아시아地域國家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事件이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蘇聯의 변모를 주도하고 있다. 現代世界에서 軍事力의 한계를 인정하고 힘의 本質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

정함에 따라, 즉 國力이란 軍事力뿐만 아니라 經濟·科學·技術의 진보 등 총체적인 의미의 힘을 의미함을 이해함에 따라서 蘇聯은 새로운 思考에 의거 外交政策을 펴게 되었다.

비록 아직도 美國을 아시아地域에서의 重要한 競爭者이자 敵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1986年以來 蘇聯은 美國에 화해제스처어를 取하고 있다. 美國이 太平洋의 強大國이며 同地域에 중요한 政治·經濟的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여 美國과의 對話增進 및 關係改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美國을 제외하고는 同地域의 모든 國家가 만족할만한 地域安保·協力問題의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美國을 포함시킨 亞·太포럼을 제창하기에 이른다.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가 美國의 參加를 부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蘇聯의 對美國觀의 변화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蘇聯이 中國과의 關係改善을 모색할 때 걸림들이 된 것은 소위 3大 장애물로 불리는 문제들이었다. 國境의 蘇聯軍, 蘇聯의 아프카니스탄占領,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에 대한 蘇聯의 支援이 바로 그 3大 장애물이다. 이를 인식한 蘇聯은 몽고駐鈍軍의 3/4을 철수시키고, 中·蘇國境地帶에서 蘇聯軍을 철수시키고 있으며,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 주둔군을 철수시키고 캄보디아問題의 해결을 위해 中國 및 餘他 強大國과의 協商意志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蘇聯의 努力을 中國은 肯定的으로 평가, 兩國間的 貿易量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1989年에는 3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蘇聯에게 있어 中國과의 關係개선은 아시아政策의 軸점으로 특히 重要하다. 中國과의 再和合은 美國과의 競爭에서 불리한 現地位를 완

화시켜주는 의미가 있을 뿐더러, 中·蘇, 中·몽고國境을 따라 배치된 集中된 軍事力을 자유롭게 해주며 시베리아, 極東의 經濟發展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 이는 結局 反蘇同盟性格을 가지고 있는 戰略的인 美·中關係의 形成을 방지해 준다는 側面에서 重要性을 지닌다.

그러나 中·蘇關係의 發展에는 한계가 있다. 1950年代식 同盟關係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5가지를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첫째, 中國과 蘇聯은 모두 自國의 國內經濟를 現代化 및 改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평화스러운 國際環境, 防衛費 감소 및 國境地帶의 平和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요인이 中·蘇 關係改善에 디딤돌이 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中國의 主要 關心事인 安保와 經濟發展은 오히려 西歐로부터 보증받을 가능성이 보다 농후하다. 戰略적으로 蘇聯은 유럽大陸에서 가장 강력한 軍을 보유하고 있으며, 中國의 海안선을 따라 여전히 거대한 태평양함대를 보유하고 있고 中國과 敵對關係인 印度·베트남에 軍事支援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強力한 蘇聯과 均衡을 유지하기 위해 西歐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아시아에서 中國은 蘇聯의 對應國으로 美國을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에서 蘇聯과 中國은 地政學的 競爭關係에 놓여있다. 韓半島·인도차이나·印度洋과 같은 몇몇 主要 地域에서 각각의 政策에 우려를 表明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中國은 蘇聯의 영공통과를 허락한 北韓과 蘇聯間의 軍事的 軋착관계 집중에 불만을 나

타내고 있다.

세째, 蘇聯과 中國은 모두 相對國의 장기목표에 뿌리깊은 상호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現在의 우호관계는 經濟力 強化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다음 世紀에는 좀더 強力한 競爭國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네째, 새로운 이데올로기 갈등이다. 東歐에서는 共產政權이 전복되고 中國은 천안문사태以後 民主化運動의 좌절을 맛보았다. 中國은 東歐에서 社會主義 정권분리를 가져오고, 기타지역에서 사회주의의 存立을 위태롭게 한 점에서 고르바초프를 비난하고 있다.

다섯째, 中國은 經濟關係 側面에서 蘇聯과의 관계보다 西歐와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 최근 中國과 美·日과의 관계침체에도 불구하고, 蘇聯과의 貿易量은 全體貿易量의 5%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美國·日本·餘他 太平洋國家들의 경우 2/3에 달하고 있다. 蘇聯의 經濟回復速度와 西歐의 發展된 技術 및 축적된 資本을 고려할 때, 現實적으로 西歐와의 經濟關係가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5가지 장애요인을 고려한다면, 中國은 蘇聯과 관계개선의 노력의지를 지속하겠지만 전적인 信賴에 바탕을 둔 關係는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베리아開發의 活性化와 太平洋經濟體로의 편입에는 日本의 資本·技術을 비롯, 日本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같은 고려에서 蘇聯은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추진하고 있다. 즉, 蘇聯의 입장에서 日本技術을 습득하고 國際經濟機構, 예를 들면 太平洋經濟共同體나 아시아開發銀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經濟大國으로서 강력한 發言權을 지닌 日本의 도움이 요구되며, 또한 日本의 立場에서도 全世界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蘇聯과의 화해경향에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蘇關係 역시 中・蘇關係와 마찬가지로 접근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日・美間의 견고한 同盟體制, 비록 貿易 不均衡問題로 兩國間에 불협화음은 있으나 競爭關係에 그칠 뿐 적대관계로 전환하는 경우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美國은 自國의 産業革新에 뒷받침될 日本의 資本이 必要하며, 安定된 國際體制의 유지에 經濟大國인 日本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다. 日本도 自國의 安保유지에 美國의 힘이 必要하며, 美國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美國과 日本間에는 公同이익이 存在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의 日本經濟의 구조적 변화와 蘇聯經濟의 한계성, 1970年代에 日本은 蘇聯과의 貿易量에서 資本主義國家中 제 1위를 견지하였으나 1981年 그 순위는 5위로 뒤쳐졌다. 더우기 日本은 1970年代以來로 보다 燃料効率的인 生産方法을 모색하고 석유공급처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시베리아의 石炭 및 가스開發에의 참여유인이 감소되었다.

셋째, 兩國間의 뿌리깊은 불신이 日本의 北方領土問題와 관련 問題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 結果 日・蘇關係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蘇聯의 기대 즉, 美國의 戰略防衛프로그램에의 참가저지 및 日本의 資本・技術의 획득이라는 目標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以上の 內容을 요약한다면, 東北亞地域에서의 4강관계는 일반적으

로 蘇聯에 대항하는 美·中·日의 反蘇同盟關係가 해체되고 밀착된 관계는 아니지만 이완된 協力關係를 보이고 있다. 個別的으로 본다면, 蘇聯의 영향력은 軍事水準을 벗어나 政治·經濟分野에서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中國은 과거 冷戰期間동안 유지해 올수 있었던 美·中·蘇의 戰略 三角關係에서 유리한 頂點位置에서 美·蘇 화해시대로 시작된 脫冷戰時代에서 三角關係로 약화되었다. 日本은 世界的 規模로의 經濟力 증대로 아시아地域政治에서 前과는 다른 政治的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美國은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既存의 우위를 고수하고 있다. 즉, 全體적으로는 和解·協力 분위기가 지배하지만, 힘의 分散으로 四強이 서로 견제하는 新國際狀況이 東北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4 強과 韓半島

美國, 蘇聯, 中國, 日本間的 새로운 力學關係속에서 과연 韓半島의 위상은 어떻게 정립되는가?

美國은 駐韓美軍 減縮論議가 실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中國政府의 同意下에 지난 '88년부터 진행되어온 北韓接觸을 北京과 UN 등지를 무대로 1990年 1月 두차례의 大使級接觸을 포함 13차례에 걸친 非公式接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부분철수나 완전철수가 이루어질 경우 시간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蓋然性 높은 사태발전은 美·蘇·中·日의 南北韓 교차승인과 UN 동시가입, 南北韓 不可侵條約, 南北韓 軍縮協定 등 한반도 平和共存의 틀이 보장되고 나아가 單一民族 共同體의 聯邦政

府形態를 거쳐 中立的인 民族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大轉機가 마련될 수 있을 법하다고 말할 수 있다. 新國際體制下에서 한반도 현상변화의 첫 조짐인 駐韓美軍減縮은 분명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상징적 의미가 크다.

韓美關係에 있어서도 美國의 貿易開放壓力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美·北韓間의 經濟交流도 어느 정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半島와 관련된 蘇聯立場은 1989年 고르바초프의 中國訪問時 中國과 意見接近을 본 것으로 알려진 韓半島 緊張緩和 措置로 南北對話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同地域 當事國들간의 ‘韓半島 協議機構’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同協議機構案과 관련, 1989年 여름 「新時代」(Novy Mip)에 발표된 “韓半島情勢”란 論文을 통해 같은 脈絡의 提案을 하기도 하였다.¹³⁾ 이 論文에 따르면, 美·蘇兩國 및 南北韓代表로 구성되는 常設委員會를 만들고 美·蘇가 對韓半島政策을 조정하여 蘇聯은 北韓에 대한 무기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美國은 駐韓美軍을 철수하며 韓半島의 非核化를 협의하고 南北韓 2개의 國家를 승인하는 기초에서 同地域國家들의 國際會議을 개최하고자 提案하였다. 美·蘇·中 등 相關국가들은 UN後援下에 南北韓武力不使用條約의 보증국이 되고 南北韓도 참가하는 國際委員會를 구성하여 南北韓의 기습공격방지와 信賴構築方案을 마련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非武裝地帶 양편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마지막 단계로 南北韓이 均衡있게 軍縮을 실행하여 美國의 단계적 철

13) 「東亞日報」, 1989年 8月 30日

수를 시작하여 이와 同時에 南北韓間의 統一會談을 계속토록 하자고 하였다. 結局 蘇聯은 무엇보다도 南北韓間의 대화를 중용하고 있다.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은 緊張緩和쪽으로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國內의 政治的 도전과 經濟發展이란 中國의 立場에서 韓半島를 포함한 아시아地域의 不安定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은 현재 北韓의 2배가 넘는 規模의 貿易關係를 韓國과 맺고 있으며, 韓國企業들과 3억달러에 이르는 投資關係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면 中國으로서 韓國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脫冷戰의 新國際體制의 등장과 함께 國際環境이 변하고 美·蘇·中·日 등 韓半島 周邊勢力들이 南北韓의 교차승인 등 발생가능한 사태발전들로 인하여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보장하고 窮極的인 韓半島 統一與件이 분단후 처음으로 아주 有利한 方向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有利한 環境을 맞아 南北韓은 과거의 冷戰意識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인식전환을 거듭, 한반도문제의 主體的이고 能動的인 行爲者로서 國際環境의 변화와 周邊 4強의 政策變化를 예의주시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V. 結 論

第2次 世界大戰以來 40여년동안 지속되어온 冷戰國際主義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國際環境을 창출시킨 要因으로 여러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重要的 要因으로는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新思考에 의한 改革政策을 들 수 있다. 新思考에 의한 外交政策은 國際關係의 탈이데올로기화와 脫軍事化的 基조위에 軍事的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政治·經濟的 諸側面에서 美國과 새로운 關係 즉, 동반자로서의 關係를 정립시켰다.

한편 1980年代의 世界的 脫冷戰傾向은 아시아地域에서도 다음과 같은 特徵을 보여주었다. 安保利害의 多樣化, 東北亞地域의 戰略的 重要性의 증대, 經濟發展과 새로운 地域協力の 증대, 東아시아 社會主義國家들의 침체와 새로운 政策方向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背景下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國際環境과 아시아國際情勢의 變化속에 蘇聯은 1986年 블라디보스톡演說을 기점으로 1988年 크라스노야르스크宣言 및 UN演說을 통해, 아시아政策을 가시화, 구체화시키기에 이른다. 同政策은 政治的 側面에서 地域國家들과의 關係增進, 經濟的 側面에서 地域經濟機構로의 편입노력과 “特惠待遇” 및 “自由經濟特區의 設置”를 유인책으로 極東地域 특히 시베리아 開發에의 域內國家들과의 協力모색, 그리고 軍事的 側面에서 地域水準의 軍縮 등의 內容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外交政策의 수행은 아시아에서 1970年代式 美·中·日의 反蘇共同盟路線에 변형을 結果하게 된다. 美·蘇間의 신데탕트, 中·蘇關係의 현저한 發展 및 日·蘇間의 제한적이거나 점진적인 關係

發展 등으로 비록 밀착된 協力關係는 아니더라도 이완된 平和友好 분위기가 4 強의 國際關係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全體的인 이완된 화해·협력 분위기속에 힘의 分散으로 상호견제하는 新國際秩序가 東北亞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美·蘇冷戰의 희생물이었던 韓半島의 미래도 冷戰終熄과 새로운 國際環境의 量과 質의 변화속에서 南北韓의 平和共存 보장의 틀과 窮極的으로는 韓半島統一에 대한 가능성이 分斷以後 가장 높은 大轉機의 時代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韓民族共同體의 利益을 위해 새로운 時代의 새로운 인식전환으로 韓半島平和와 統一을 向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Ⅱ. 東北亞 政治經濟의 變型과 美國의 役割

鄭 正 侁

(서울大 行政大學院 教授)

目 次

| | |
|----------------------------|----|
| I. 序 論 | 55 |
| II. 冷戰의 終熄과 東北亞 | 57 |
| III. 美國經濟패권의 저하와 東北亞 | 63 |
| IV. 美國外交政策의 세가지 視角 | 70 |
| V.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役割 | 75 |
| VI. 結 論 | 85 |

I. 序 論

오늘날 世界는 冷戰의 해체와 새로운 協力時代의 개막이라는 未曾有의 變化를 겪고 있다. 2차대전후의 國際關係를 規定해 왔던 冷戰의 原理가 多ilateralism을 계기로 歷史의 化석으로 남을 可能性이 現實로 다가오고 있다. 昨今の 對이라크 共同制裁에서도 새로이 드러난 美蘇協力時代의 출발, 東歐를 휩쓸고 있는 民主化의 물결,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로 대변되는 蘇聯體制의 根本的 變化 등이 冷戰時代의 終熄을 재촉하고 있다.

또 다른 重要的 體系的 變化는 最近 美國經濟패권의 相對的인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 2차대전 직후 美國은 거의 모든 産業에서 國際競爭을 선도하였고 패권적 지위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레이건 政府의 登場 이후 巨視經濟政策의 失敗와 過多한 軍事費 支出은 美國을 最大 純債權國에서 最大 純債務國으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고도의 技術集約的 産業部門에서도 競爭力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는 日本의 꾸준한 技術開發과 新興工業國의 急成長에도 起因한다 할 수 있다.

이같은 冷戰의 終熄과 美國經濟패권의 相對的 低下는 유럽은 물론 東北亞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美國民들은 특히 戰後 自身들이 담당해 온 國際的 役割에 대해 根本的인 再評價作業을 하는 등 外交政策에 대한 多樣한 視角이 紛紛하게 提示되고 있다. 東北亞에 주둔한 美軍 撤收論議, 經濟面에서의 市場開放壓力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變化를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東北亞의 政治經濟

的 變化를 가져오는 動因은 무엇이며, 그 양태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美國의 指導者들은 變化된 現實속에서 自國의 역할을 여하
히 인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나서 마지막으로 東
歐와는 다른 東北亞의 狀況속에서 美國의 役割은 어떤 것이어야 하
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冷戰의 終熄과 東北亞

冷戰을 終結시키고 새로운 時代를 가져오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이는 고르바초프라는 데는 거의 異見이 없다. 蘇聯經濟를 活性化하고자 하는 內部的 欲求로 出發한 페레스트로이카는 蘇聯의 對外政策에 一大轉換을 가져왔다. 고르바초프의 外交政策은 세가지 영역에서 주요한 변화를 야기시켰다.¹⁾ 첫째, 戰爭의 威脅이 顯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軍事的 威脅에 倚重하는 傳統的 國家安保概念의 再評價에 기반한 것이다. 즉, 國防이라는 安保概念은 국가關係를 지나치게 軍事化하여 國家間 相互不信을 조장하였고, 軍事的 威脅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經濟的, 環境的 要因 等 여타의 威脅要因을 간과하였다.²⁾ 그러나 무엇보다 決定的인 政策轉換을 가져오게 한 것은 國家生存의 保護手段으로서 軍事力의 効用性 自體가 문제시된 데 있다. 美蘇間의 核開發 競爭으로 超強大國間 파괴력이 均衡에 達함에 따라 核武器는 단지 象徴的 힘을 保有하는 종이호랑이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³⁾

둘째, 蘇聯外交政策은 經濟的으로 보다 現實的인 政策을 追求하는 方向으로 돌아섰다. 國內外的 變化에 따라 蘇聯內에서는 健康한 國民經濟 및 世界와의 經濟協力이 冷戰時代의 軍事力보다 安保에 더욱

註 1) John Edwin Mroz, "Soviet Foreign Policy and New Thinking," *International Affairs*(May, 1990).

2) 이민룡, "자원안보의 이론과 실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 6권 1호(1990, 봄), pp.121~151.

3)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New York:Basic Books, 1986).

重要하다는 意識이 증대해가고 있다.⁴⁾ 이것이 서울 및 東京과의 關係를 正常化시키는데 重要性을 부여하는 所以이다. 蘇聯은 現在 自國의 經濟近代化를 最優先의 課題로 삼고 國際的 公約을 이에 從屬시키고 있다. 이런 脈絡에서 亞太國家들과의 經濟協力을 增大시키려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블라디보스톡宣言과 크라스노야르스크선언이 나왔다.

세계, 소련은 國際的 名聲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제까지 철의 장막속에서 잊혀져 왔던 自由와 人權, 그리고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國際社會의 重要한 一員으로서의 責任을 分擔해 가고 있다. 바야흐로 人間의 얼굴을 지닌 社會主義의 追求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르바초프의 平和政勢를 회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美國에서 蘇聯의 政策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가 개진된 것은 부시의 89년 5월 텍사스대 연설에서 었다.⁵⁾ 그는 이 자리에서 “美國은 蘇聯의 世界秩序에의 復歸를 환영한다”고 밝힘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를 積極的으로 평가했다. 이후 89년 12월 지중해상의 몰타 회담에서 부시와 고르바초프는 協力에 기초를 둔 새로운 時代의 도래를 宣言함으로써 冷戰의 실질적 終熄이 可視化되기에 이르렀다.

蘇聯의 軍事的 威脅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 새로운 國際環境은 美國外交政策에 전대미문의 도전을 야기시켰다. 즉 戰後 美國外交政策

註) 4) Vladimir Ivanov, "Perestroika in the Pacific,"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 22, 1990), pp. 24 ~ 25.

5) Minoru Nagata, "Bush Diplomacy: Groping for 'Post Cold War' Strategy", 『KAIGAI JIJO (Journal of World Affairs)』, Vol. 38, No. 6 (June 1990), p. 3.

의 根幹을 이루어오던 對蘇封鎖政策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것이다. 冷戰의 終熄과 더불어 다가온 敵의 喪失이라는 外交政策座標의 弱化는 미국내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첫째, 冷戰論理라는 美國外交政策의 확실한 좌표를 잃게 되었다. 둘째, 이는 나아가 行政府와 國會間, 行政府內 權力 갈등을 바꾸는 制度的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安保問題를 專擔하던 國家安保會議의 機能은 점점 축소되고 國會가 보다 큰 역할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셋째, 美國外交政策 決定機關들의 주요한 組織原理였던 反共論理를 喪失하게 되었다.⁶⁾

이같이 美國外交政策의 合意의 초석이 동요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外交政策 進路에 대하여 크게 세가지 서로 다른 길이 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첫번째는 앞으로의 美國外交政策이 美國의 國家利益에 충실하도록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美國의 敵이었던 蘇聯의 위협의 不在를 근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冷戰이 종식된 이후 好戰的인 共產勢力이 더 이상 存在하지 않음에 따라 美國이 世界 도처에 파견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美軍의 가장 重要한 역할은 공격적이고 팽창지향적인 蘇聯의 위협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抑止力을 維持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蘇聯이 自國軍의 감축 및 軍需産業의 民需

註 6) Chales William Maynes, "America Without the Cold War," Foreign Policy, No.78 (Spring,1990). pp.3~25.

産業으로의 전환 등 평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유럽의 自決權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政策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더 이상 이들의 주둔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美國의 敗政赤字가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海外에 주둔하는 美軍의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도그 밴도박사는 駐韓美軍에 대해 논하면서 한국을 떠나는 것이 常道임을 주장하고 나선다.⁷⁾ 그는 워싱턴의 주요한 관심은 美軍의 經濟的 活力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南韓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政治經濟力을 고려할 때 駐韓美軍의 撤收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첫째, 지난 20여년동안 南韓의 經濟적 成功이 可히 비약적인 것이어서 1인당 국민소득을 볼 때 南韓이 4000 弗에 달하고 있어 北韓의 4 배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둘째, 88년 서울올림픽경기로 국제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또 세계로 한국의 北方政策에서 보여주듯이 餘他 世界를 다루는 外交的 力量에 있어서도 南韓이 명백한 優位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美國의 利害를 바탕으로 한 철군주장은 미국에 다음과 같은 이익을 안겨주리라고 한다. 첫째, 美國이 세계 도처에 설치해 놓은 인계철선을 제거하게 됨에 따라 戰爭 발발시 美國의 개입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 美國이 적어도 1년에 20 ~ 30 억불을 저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美國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는 것이며, 세계로 워싱턴이 지금까지 南韓 등 정부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으로부터

註 7) Doug Bandow, "Leaving Korea," Foreign Policy, No. 77(Winter 1989 ~ 90), pp. 77 ~ 93.

벗어나게 함으로써 政治的 利益을 享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海外駐屯 美軍의 전면적 철수를 주장하는 이와같은 논리 전개는 政治的으로 신중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적어도 철군의 첫 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不安定과 不確實性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해 줄 것이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전면적인 철군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힘의 공백이 무질서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또한 세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行使하고자 하는 美國의 國家利益의 또 다른 측면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하는 戰略的인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美國外交政策의 두번째 進路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民主主義 價值的의 世界的인 擴散에 美國이 注力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民主主義라는 이름의 正義의 기수로 美國은 理念的인 先導者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⁸⁾ 이는 現在의 蘇聯의 改革과 民主化나 東歐의 民主化 열풍, 그리고 第3世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自由化의 물결이 곧 美國的 民主主義의 勝利라고 보는 見解를 바탕에 깔고 있다. 世界를 지도하는 原理로서의 民主主義의 輸出, 즉 民主主義의 十字軍역할을 美國이 떠맡아야 하고 또한 오직 美國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民主主義的 價值的의 積極的인 擴散은 美國으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世界를 관리하고 正義로운 모습으로 世界의 제문제에 간여하는 것을 可能하게 하리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나아가 民主主義의 價値에 배치되는 국제적 行爲에 대하여는 武力의 使用도 不辭한다는 결연한 意志를 표

註 8) Chales Willian Mayes, op. cit.,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국제법이라는 行爲規範에 대하여 合意를 創出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이제까지 국제법원리에 충실했던 美國이 무력 사용 및 국내문제 간여등으로 無法者로 비치는 반면 平和攻勢를 내세우는 蘇聯이 合法的 行爲者로 부각되어 美國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外國의 直接 介入에 따라 찾아올 부담을 과연 美國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셋째, 美國的 價値에 충실한다 해도 美國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民主政府만 지원하게 됨으로써 似而非 民主政府만 지원하게 되는 愚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네째로 美國이 세계의 제문제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妥協할 가능성도 적지않은 회의를 가져오고 있다.

平和를 爲한 協力の 모색이 세번째로 등장한 美國外交의 새 진로이다. 이제까지 冷戰的 葛藤과 不信에 얽매어 對峙만을 일삼던 一切의 關係를 타파하고 다음의 領域에서 協力を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U.N. 헌장에 기초를 둔 새로운 安保體系下의 軍縮과 軍備統制, 그리고 南北關係의 變換을 시정할 수 있는 世界的인 發展計劃의 樹立, 그리고 經濟的, 社會的 側面的 自由에 着점을 맞춘 民主主義에 대한 合意의 도출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루즈벨트가 제시했던 네가지 自由, 즉 言論과 意思表現의 自由, 信仰과 宗教의 自由, 궁핍으로부터의 自由,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自由에서 출발하는 共通의 民主主義 價値規定으로부터 나아가 冷戰없는 세계에서 協力の 토대를 다져야한다는 것이다.

Ⅲ. 美國의 經濟패권 低下와 東北亞

美國의 經濟패권의 저하는 미국내에서도 심각한 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세계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전후 미국은 모든 産業을 선도하였지만 점차 그 발판이 약화되어 1950년대에는 섬유산업, 1960년대에는 철강산업에서, 1970년대 중반에는 家電製品 그리고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自動車 部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⁹⁾ 그 주요한 경쟁국은 주로 日本과 신흥공업국이였다. 이제는 첨단산업인 반도체분야 등에서도 그 獨占的地位를 위협받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세계 GNP 점유비를 보아도 1955년에는 전 세계의 40%정도를 점하던 것이 오늘날에는 20%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최근까지도 美國은 세계최대의 순채권국이였으나 이제는 최대의 순채무국으로 전락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위 쌍둥이 적자로 불리우는 敗政 및 貿易赤字는 심각하여 1988년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는 1380억불, 재정적자는 1496억불이라는 기하학적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¹⁰⁾

이러한 와중에서 미국의 朝野는 美國의 競爭力 回復과 經濟力 再建을 초미지급의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게 되었다. 美國의 前 國務

註 9) Hideo Sato, "Maintaining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fter the Cold War and the U.S. Economic Hegemony: An Inquiry into the Role of Japan," A Paper Prepared for the 19th Int'l Conference of the K.I.I.S. Sep. 3-4, 1990. Seoul.

10) Samwel Huntington, "The U.S. Decline or Renewal?" Foreign Affairs, Vol.67. No.2 (Winter 1988/39) pp.76~96.

長官이던 키신저와 밴스는 공동기고문을 통해 美國經濟의 취약성이야말로 美國의 대통령들이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外交政策 과제임을 밝힌 바 있다.¹¹⁾ 하버드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레이몽 버논도 한 글에서 “美國에게 있어 核心的인 문제는 美國의 經濟力과 技術的 資源이 限定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의 政治的 군사적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¹²⁾ 이같은 인식은 비단 엘리트들에만 국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988년에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가장 큰 威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1%가 소련과 같은 軍事的인 敵對國이라고 밝힌데 비해 과반수를 훨씬 넘긴 59%의 응답자가 日本과 같은 經濟的 競爭國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대답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 또 다른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들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政策目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다음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즉, 마약 퇴치→무역적자 해소→미소군비축소→중남미 공산주의퇴치→소련공격의 억제 순이다.¹⁴⁾ 이는 미국민의 궁극적인 관심이 마약과 경제력 회복 등 국내적인 문제의 우선적 해소에 보다 큰 비중이 쏠려있음

註 II) Henry Kissinger & Cyrus Vance, “Bipartisan Objectives for Amer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66, No.5, (Summer 1988), pp.899 ~ 921.

12) Raymond Vernon, “The Japanese-U.S. Bilateral Relationship: Its Role in the Global Econom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13, No.3 (Summer, 1990), pp. 57 ~ 68.

13) Norman J. Ornstein & Mark Schmitt, “Post-Cold War Politics,” *Foreign Policy*, No.79 (Summer 1990), pp.169 ~ 186.

14) Ibid.

을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과격한 미국지식인들은 “미국요새론”을 들고 나오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세계가 점차 保護主義 장벽을 높이고 자신의 문제에 침잠해가고 있는 시대에 미국만이 門戶를 開放하여 시장을 공략당하는 어리석음보다는 美國의 門을 굳게 잠그고 경제회복의 잠재기를 가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몇가지 面에서 결코 現實的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우선 現代의 운송수단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비약적 發展을 고려에 넣을 때 世界에 이미 받을 수없이 뺏쳐놓은 미국이 성채를 쌓으려 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허무한 노력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통화화폐인 달러貨는 자국내 통화인 동시에 국제결제수단으로서의 流動性을 보유한 二重性을 지니고 있음에 유념해 볼때 文호폐쇄가 가져올 否定的 파장은 가히 치명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예로 이미 외국정부의 美國 달러貨 보유액수가 3000억달러를 능가하고 있다는 단순한 산술적 근거만으로도 그 여파의 심각성을 논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¹⁵⁾

또한 미국요새론은 이제까지 戰後 미국의 政府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自由貿易과 開放의 論理에 正面으로 배치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美國이라는 경제대국은 自國이 그를 선호하던 안하던 간에 폐쇄적 自立經濟로 돌아설 運命에 있지는 않다고 보는

註 15) Raymond Vernon, op.cit., p.61 .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美國의 經濟力이 弱化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곧 美國의 몰락이나 영향력의 絶對的인 감소는 결코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가장 큰 논거는 美國이 여전히 軍事面에서 最強國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수개의 국가들이 核을 보유하고 있고 擴散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美國의 核武器가 지니고 있는 파괴력과 正確性 그리고 發達된 운반수단은 세계 어느 국가도 이를 추종할 수 없다는 것이 常識的인 이야기란 것이다. 비록 미국인들이 日本의 經濟大國으로의 成長을 커다란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일본을 보라고 위협적인 제스처를 내보이고는 있지만 日本이 결코 미국을 능가하거나 세계의 지도적 패권국가로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根本的 理由가 곧 美國이 가지고 있는 軍事的 能力에 있다 할 수 있다!¹⁶⁾

또한 美國民들이 되풀이하여 美國이 세계무역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되뇌이고 있기는 하지만 1950~60년대의 好況과 美國의 持分이 2차대전후의 戰後特需에 依存하였으며 여타 서구나 日本등 경쟁국가들의 경제회복이 되지않은 상태였음을 감안해 볼때 오히려 현실에 부합되는 미국의 무역고는 現在의 수치라는 지적이 있다. 즉, 比較의 준거들은 2차대전적후의 特別한 시기에 맞추기 보다는 19C 말등에 비추어볼 필요가 있으며, 보다 많

註 16) Seizaburo Sato, "The U.S - Japan Alliance under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3, No.3 (Summer 1990), pp. 69 ~ 83.

은 관심이 美國經濟 自體가 가지는 活力에 집중되지 않으면 여론의 호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¹⁷⁾

그리고 美國이 영향력을 行使하는 지렛대의 하나였던 경제력이 사실상으로 감소된 것이 현실적이라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美國의 文化的, 理念的 영향력이 결코 과소평가되거나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많은 국가들의 指導的 계층이 美國의 大學이나 研究所 등에서 修學한 이들로써 美國的 價値를 體得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英語가 세계 공용어로 使用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각종 국제기구나 제도적 장치에서 美國이 行使하고 있는 은근한 입김 또한 결코 작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美國이 當面한 과제를 푸는 길은 미국을 요새화시켜 他國의 접근을 봉쇄하거나 市場開放의 壓力을 증대시켜나가는 것보다는 美國 自體內의 經濟的 活力 回復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한편 西歐, 日本 등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는 편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진다.

미국은 우선 자국내에 팽배한 文化的 優越感을 拂拭시키고 자라나는 靑少年으로 하여금 國際的 感覺을 가지도록 하는 教育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과 범죄로 물든 기우뚱거리는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건전한 사회풍토를 세워가는 데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그리고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마땅히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¹⁸⁾

註 17) Ibid.

18) Mike Mochizaki, "Challenge of Success: U.S.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No. 1, (Spring, 1990). pp. 37 ~ 50.

또한 美國의 국제적 역할에 대하여도 재고의 여지는 있다. 특히 美國과 日本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¹⁹⁾ 美國의 패권이 지속되리라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논의는 적어도 經濟的인 측면에서만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限定된 資源과 技術 競争力の 弱化, 쌍둥이 赤字의 시련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당분간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유지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80 년대 중반이후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논의는 에즈라 포겔이 내세운 「팍스 니포니카」, 즉 日本의 황금시대가 다가오리라는 것이다. 日本의 고도기술산업의 선도, 풍부한 자금력, 組織的 團合力 등을 고려할 때 日本이 美國을 대신하여 경제적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이 軍事的 能力을 보유하는 데는 法的, 制度的 장애요인이 있고, 일본도 나름대로 成長의 딜레마를 겪고 있음을 볼 때 日本의 황금시대가 오리라고 예견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日本成長의 딜레마는 우선 日本내 노령인구의 증대와 소비성향의 상승, 그리고 相對的인 저축율의 低下 등으로 構造的인 한계에 접하고 있는게 또한 現實의 一面이다.²⁰⁾ 한편, 美國이 政治軍事的인 指導力을 지속하고, 日本이 경제부문의 지도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兩大勢力 패권론 (Bigemony) 는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담고 있다. 日本이 世界 各國과 交易을 넓혀감에 따라 多面的인 協商分野에서 美國과 日本의 協力の 여지가 점차 넓어가고 있다. 사실상 거대한 貿易黑字를 기록하고 있는

註 19) Takashi Inogudr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Vol.65, No.1 (Winter 1988/89), pp.15 ~ 28.

20) Raymond Vernon, op. cit., p.60.

日本이 美國의 재정적자가 남겨 놓은 불황효과를 완화시켜줄 새로운 役割을 수행하리라는 기대는 점차 팽배해 가고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의 발전패턴만을 살펴보아도 이는 확연히 알 수 있다. 東아시아, 특히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높은 經濟成長은 대체로 美國과 日本과의 貿易 및 投資에 크게 依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美國의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輸入支分이 日本의 그것보다 컸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로 1987년의 경우 美國의 支分은 35.1%였는데 反해 日本의 輸入支分은 11.5%에 불과하였다. 이와는 달리 輸出面에서 日本은 이들 국가들에게 26.4%를 수출한데 反해 美國은 16.2%를 수출한바 있다. 그 결과 美國은 그해 372억불의 실질 赤字를 기록한 反面, 日本은 210억불의 黑字를 남겼다.²¹⁾ 美國이 日本 및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을 겨냥하여 종합통상법안을 만들고 市場開放壓力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東아시아국가들의 美國市場의 흡수력에 依存하여 發展을 可速化하려는 데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새로운 現實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美國의 주요한 輸入흡수자로서의 役割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새로운 現實을 감안하여 日本이 東아시아 및 세계에 대하여 發展途上國의 商品輸入흡수자로서의 역할, 未開發國에 대한 援助供與國으로서의 역할 및 技術提供者 役割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음미할 가치가 있다.

註 21) Toshio Watanabe, "A New Era Dawns in the Western Pacific,"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3, No.2, (Fall/Winter, 1989) pp.161 ~ 181.

Ⅳ. 美國外交政策의 세 가지 視覺

위에서 언급한 冷戰體制의 종식과 美國經濟霸權의 상대적 저하를 바탕으로 美國外交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敵의 喪失로 인한 동요와 좌절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베트남전이후 해체된 對蘇 封鎖라는 合意의 동요는 새로운 세 가지 視角으로 集約되어 表出되고 있다.²²⁾

과연 끊임없이 위협하는 軍事的 敵對國의 不在로 상징되어 지는 現 세계에서 제시되어지는 세 가지 對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既存의 信念體系가 급속히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영향력을 남기는 狀態이고, 둘째는 엘리트들이 고도로 相互依存的이고 敵이 없는 세계에 상응하는 意味있는 信念體系를 취합하는 데 失敗함으로써 새로운 國民的 合意가 뒤따르지 않는 동요의 狀態이다. 또 세계로 일단의 엘리트들이 사실상 市民의 상상력을 포착하여 새로운 合意의 基盤으로써 후기냉전시대의 國際主義의 새로운 일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세 가지 視角이 모두 蘇聯의 변화가 진지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不信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는 하지만 現在 펼쳐지고 있는 세계적 狀況이 冷戰時代보다 훨씬 온화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에도 一致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 視角들의 核心的 價値는 무엇인가? 이들은 대략

註 22) James N. Rosenau, "Beyond Yalta and Molta: U.S. Foreign Policy in a More Benign World", A Paper Prepared For The 19th Int'l Conference of the K.I.I.S., Sept. 3~4, 1990, Seoul.

半孤立主義, 後期冷戰國際主義, 그리고 冷戰的 國際主義者로 불리어
질 수 있다.

半孤立主義者들은 體制의 改革으로 보다 순화되어진 蘇聯이 더 이
상 國際的 公約을 合理化하여 世界問題에 구석구석 간섭하려 들지
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 대신 對內的, 地域的 紛爭을 삼가하면서
資源을 축적하여 國內問題의 해결에 注力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美
國은 超強大國으로써 世界的 規模에서 秩序를 維持하는 당연시 된
義務와 負擔에서 벗어날 機會가 도래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들은
보다 온화해진 世界가 美國의 對外的 活動을 最少限으로 묶어둘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본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世界經濟가
점점 相互依存化되고 마약, 環境汚染, 오존問題 등 世界的 難題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美國이 단순히 國際的 책임으로부터 물러서서
孤立主義的 方向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美國
스탠포드대학의 스테판 크레이스너교수는 美國이 冷戰論理에 입각한
現實主義的 실전을 계속해 왔으나 세계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이를 전환시켜 新孤立主義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²³⁾ 즉 그
는 2次大戰後 蘇聯의 核武器 發展과 西歐 및 日本의 經濟成長으
로 인해 國際關係에는 構造的 變化가 나타났으나 美國의 경우 힘
의 相對的 衰退에도不拘하고 그 戰略을 變更시키지 않았다고 공
박한다. 따라서 美國은 新孤立主義에 기반하여 美國의 利益에 合致
되는 方向으로 政策을 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先進產業國
들과의 經濟領域 등에서의 협조는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美國이 國

註 23) Stephan D. Krasner, "Realist Praxis : Neo-Isonationism
and Structural Chang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ris,
Vol.43, No.1 (Sum/Fall, 1989), pp.143 ~ 160.

防費를 削減하고 유럽주둔 美軍을 철수시키는 同時에 擴散된 抑止의 原理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孤立主義的인 政策方向을 외치는 이들의 國際體制의 構造가 점차 多極化해가고 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美國內의 問題라고 본다. 그리하여 美國內의 都市問題, 인플레이션, 失業, 文化的 타락, 環境汚染 등이 美國에 위협을 주는 주요한 원천이라고 본다. 이들은 또 蘇聯도 강력한 세력이긴 하지만 國內問題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아 美國의 對外的 公약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後期冷戰 國際主義者들도 現代世界가 多極化 構造로 향해가고 있다고 보는 점에는 孤立主義者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東西關係와 아울러 南北問題, 즉 富國과 貧國과의 격차해소가 우선적 과제임을 주장하는 데서 전자의 입장과 구별되어진다. 즉 이들은 冷戰의 終熄으로 인한 보다 온화한 체계가 양대 초강국이 과거의 구습에 빠져들지 않고 第三世界를 돕는다든가 超國家的 國際機構를 樹立할 적절한 機會가 도래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美國에 대한 위협의 주요 원천도 貧困, 資源의 不平等한 配分, 第三世界에서의 地域的 反目 등으로 보며 蘇聯이 軍事的으로 강력하기는 하지만 여타의 發展國들처럼 國際的 行動樣式을 익혀감으로써 西歐에 危脅的인 存在라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美國이 世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몇몇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선택적인 指導力을 行使하는 制限的 接近方法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脈絡에서 美國의 外交政策도 대치관계를 청산하고 世界秩序 樹立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 政治的, 經濟的 制度의 多樣性을 증진하는 方向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冷戰後期

의 國際協力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로 美國이 중요한 몇개의 문제에만 간여해야 하며 새로운 現實에 입각한 보다 선택적이고 협력적인 國際戰略을 樹立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制限的인 接近法이 이 시각의 가장 큰 特徵이다.²⁴⁾

그러나 後期冷戰 國際協力者들의 딜렘마는 美國이 어떻게 地域紛爭에 對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보다 相互依存化되고 分權化된 世界에서 가장 國際化된 指導者들에게도 地域的 水準에서의 軍事的, 經濟的, 社會的 동요의 發生에 어떻게 對處해 나갈 것인가 하는 信念體系의 開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은 틀림없다. 이 같은 예는 최근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제재하는 美國의 態度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平和의 單純論理的 維持에 집착할 것이냐, 協力雰圍氣를 저상해서라도 地域紛爭을 종식시키기 위해 과감히 一戰을 不辭할 것이냐 하는 어려운 選擇의 問題가 美國 政治指導者들의 最大의 고뇌로 등장한 것은 바로 새로이 등장한 國際現實에서 오는 여파가 아닐 수 없다.

冷戰終熄에서 온 보다 온화한 世界에서 現實에 맞는 信念體制를 導出해 내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者는 冷戰主義者들이다. 이들은 현재 蘇聯이 對外的으로 積極的인 平和攻勢를 내세우고 經濟再建을 위해 內部的 問題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蘇聯이 影響力의 回復을 위한 재충전기로서 시간벌기작전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蘇聯의 불곰은 단지 발톱을 감춘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註 24) Kissinger & Vance, op. cit.

바뀌 말해서 그들은 蘇聯의 유화적 態度가 根本的인 變化를 反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現在의 유화적 패턴이 계속 지속될 경우 이들은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여러 가지 可能性을 念頭に 떠올릴 수 있다.

첫째, 그들은 變化를 美國의 강경한 軍事的 姿勢와 冷戰政策 持續에서 오는 부산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들은 완전한 혼돈에 빠져들어 제반문제에 대해 좌충우돌하는 態度로 反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조화된 信念에 기반하기보다는 즉흥적인 雰圍氣를 표출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세계의 개연성은 그들은 포괄적인 軍事的인 準備態勢와 美國의 海外에서의 공격적인 입장을 正當化시킬 수 있는 다른 危脅要因을 찾아냄으로써 그들이 지닌 冷戰的 信念體系를 維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포괄적으로 危機와 회의의 순간에만 焦點을 맞추므로써 보다 온화한 世界를 향한 全世界的 움직임을 단순히 선행적인 것으로 보아 인젠가는 사라지고 말 일시적인 현상으로 제쳐넘길 可能性도 있다. 다섯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보다 온화한 世界에서도 協力的 노력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 國家利益의 협소한 定義로 물려서 버리는 것이다. 또 다른 可能性은 명백한 外敵이 지속적으로 不在한 狀態에서 몇몇 冷戰的 國際主義者들은 孤立主義의 미국요새화론적 형태에 매료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冷戰的 國際主義者들이 베를린 장벽의 崩壞나 東歐의 民主化 등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고무적으로 해석하고 蘇聯의 持續的인 自制를 肯定的으로 評價하여 後期冷戰的인 國際主義者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다.

V.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역할

冷戰의 물결이 점차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유럽과 東北亞에서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내에서 外交政策의 將來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現實적으로 冷戰終熄의 밭길이 재촉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하다.

그러면 東北亞에서의 冷戰의 해체는 유럽의 과정과 어떻게 상이한가? 이는 장차 美國이 이 地域의 安定과 平和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목해야 할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유럽의 安保構造와 아시아에서의 戰略的 環境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우선 유럽의 軍事戰略的 競爭은 타이트하게 組織된 두개의 多面的 集團同盟體制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간의 대치관계로 特徵지워 왔다. 따라서 유럽에 있어서 問題가 되는 것은 상호 대치하고 있는 양 진영의 총체적인 軍事的 均衡의 問題가 관건이었으며 지상전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대치하는 두개의 대립핵은 여하한 相對方을 抑止하는가에 중심이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交互性의 原則下에서 核戰力이나 通常戰力을 均衡있게 감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個別的 國家의 軍事的 能力의 計算보다는 한 진영 전체의 總體的 能力을 比例시키는 것이었으므로 검증과 計算이 쉬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東北亞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²⁵⁾ 즉 東北亞

註 25) Pentagon, "A Strategis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Forward to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Affaris (June, 1990), pp. 126 ~ 138.

에는 集團的인 安保體制가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美國과 연결된 별개의 이완된 쌍무적 방위조약들이 作動하고 있어 軍縮의 問題에 이르렀을 때도 各國이 처한 個別的 狀況에 따라 따로따로 進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全 地域을 공통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明確한 基準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의 커다란 차이는 유럽에서의 軍事對峙가 주로 地上軍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軍縮의 實現이 쌍방간에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東北亞로 눈을 돌리게 되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즉 對峙의 두 축인 蘇聯軍과 美軍을 볼 때 전자는 주로 極東에 配置된 地上軍 中心인데 反해 후자는 주로 海空軍 中心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美軍의 이러한 구성은 石油와 資源의 安全한 供給路를 確保하고자 하는 戰略的 計算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相異한 구성의 美蘇間의 軍縮을 同時에 실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 많은 수의 地上軍을 減縮하는 것이 現實的으로 可能的한 地域이라곤 오직 韓半島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軍縮과 平和地帶 提案에 積極的인 蘇聯의 公세도 美國의 압도적인 海軍力의 優위를 잠식하고자 하는 一面이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유럽과 아시아는 發展의 단계가 다름도 指摘할 수 있다. 유럽國家들은 주로 同質的이며 文化的인 屬性도 공유하면서 產業發展段階가 높은 國家들로 構成이 되어 있어 國家間 發展의 격차가 적은 편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豊요하고 發展된 經濟狀況에 同

註 26) Hideo Sato,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East Asia", A Paper Delivered at the Tsukuba University Symposium. March 26~27, 1990.

參하고자 하는 欲求가 東歐의 改革을 促進시켰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東北亞는 중층적이고 階序화된 다양한 發展段階의 國家들이 共存하고 있다. 크게 보아 日本, 臺灣, 韓國, 싱가포르, 홍콩등의 아시아 新興工業國, ASEAN 그리고 北韓과 中國의 社會主義圈으로 大別되는 國家群이 共存하는 地域이 東北亞이다. 그 결과 아시아國家들은 엄밀한 意味에서 統合을 위한 誘因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環境은 歷史的인 遺産과 관련되어 있다. 유럽은 1970年代初이래 冷戰의 이완기라 할 수 있는 데탕트를 경험한 바 있다. 비록 1980年代初부터 수년동안 全 世界的으로 冷戰의 기운이 되살아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國家들은 그 와중에서도 차근 차근 緊張緩和와 信賴構築을 위한 實質的 經驗을 쌓아왔다. 1973年이래 東西獨 國民들이 서로의 TV 채널을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연속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反面 東北亞에는 데탕트의 기운이 스며들 여지가 없었다. 특히 아시아國民들은 韓國戰이나 베트남戰爭처럼 熱戰으로 비화한 쓰라린 記憶을 가지고 있어 冷戰의 해체가 더욱 더디어졌다. 前後世帶의 머리속에도 깊이 뿌리를 내린 戰爭의 기억은 冷戰的 思考의 論理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는 冷戰을 끝내고자 하는 이제까지의 많은 시도들을 허무하게 무너뜨린 한 要因으로 강하게 作用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政治體制上의 차이이다. 冷戰의 崩壞를 촉진한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급격한 改革과 中國 및 北韓의 社會主義 固守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東아시아 社會主義의 두가지 獨特한 特性을 반영하는 것이다. 첫째, 中國과 北

韓의 政治指導者들은 소위 “革命 1 世代” 라는 점을 留意해야 한다. 그들은 自身들이 建設한 社會主義를 탈각하기보다는 이를 더 완전히 하고자 하는 데 더 큰 利害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東아시아國家들의 오랜 權威主義的 傳統이다. 사실상 일찌기 19C 말이나 20C 초에 民主化를 경험했던 東歐國家들에게 있어 民主化는 過去 市民社會의 경험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東아시아國들에게 있어 民主化란 새로운 政治原理의 創出이라는 벽찬 과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럽과 東北亞의 相異한 環境을 고려할 때 美國의 역할 또한 相異해야 함은 自明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보다 많은 관심이 現在 西太平洋地域에 주둔한 美軍의 철수에 집중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最優先的인 고려가 冷戰의 孤島로 불리우는 韓半島 內의 駐韓美軍에 주어지고 있다. 美國은 지난해 이미 철군의 計劃을 밝힌 후 90年初 세개의 美空軍基地를 閉鎖하고 地上軍 일부를 철수시킨 바 있다. 그리고 韓國政府에 防衛費 分擔을 늘려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책임분담론자들이 주장하는 韓半島의 3個의 安定要素는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北韓은 이제 더 이상 南韓에 대해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南韓을 共產化하는 目標를 포기했다는 것이며, 둘째, 蘇聯과 中國은 南韓에 대한 北韓의 어떠한 움직임도 反對하고 있

註 27) 레리 닉시, “주한미군, 아직도 필요한가?”, 「국제문제」 (1990. 4), pp. 62 ~ 68.

으며 南韓과의 經濟關係 樹立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세계로 南韓의 일반대중 사이에는 美軍의 軍事的 存在에 대한 反感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判斷下에 美國防省은 지난 4月 議會報告書를 통해 部分的인 軍事力 削減과 함께 韓半島에서의 美軍의 역할을 主導的인 입장에서 支援하는 立場으로 전환하는 計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1년 내지 3년간에 걸쳐 1段階로 第2師團을 輕量化하여 2천명의 空軍과 5,000名의 地上軍을 包含하여 道합 7,000名의 美軍을 減縮하고, 2段階로 3年 내년 5年에 걸쳐 駐韓美 2師團의 구조조정을 거친 후 5年 내지 10年後에는 3段階로 韓國이 防衛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이러한 駐韓美軍 減縮計劃은 全般的인 南北韓關係의 緊張緩和趨勢 및 軍事力 均衡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韓國은 항구적으로 2개의 軍事的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로 南韓人口의 $\frac{1}{4}$ 이 모여살고 있는 서울이 DMZ에서 불과 25마일거리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北韓은 事前警告時間 餘裕를 주지 않고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能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國의 자동개입신호를 완전히 제거하는 駐韓美軍의 전면철수 및 地上戰鬥部隊의 급격한 減縮은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다. 따라서 南北韓關係의 推移와 北韓의 공격적 의사의 포기 및 개방노력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철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진다.

註 28) Pentagon, op.cit.

駐日美軍의 역할에 대하여도 새로운 視角이 고개를 들고 있다. 駐日美軍의 基本骨格을 이루고 있는 것은 美日安保條約과 日本의 平和憲法이라 할 수 있다. 美日安保條約은 네 가지 目的에 충실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²⁹⁾ 첫째, 이는 極東에서의 平和와 安保를 유지하는 美軍의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基盤을 이루고 있다. 둘째 이는 日本의 安保에 貢獻한다. 이같은 두 目的은 條約에 明示되어 있다. 셋째, 이 條約은 日本이 다시는 여타 東아시아國家들에게 軍事的 威脅을 주지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한다. 넷째, 美日安保條約은 美日間의 友好의 基盤을 확대하는데 초석을 이루고 있다. 後者の 두 目的은 최근 수년간에 發展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美日安保條約의 네가지 目的中 前者의 두 項目, 즉 軍事的 性格 보다는 後者の 두 項目, 즉 政治的 性格에 焦點이 모아지고 있다. 즉, 駐日美軍이 주둔하는 理由가 日本이 蘇聯에 對항하여 자신을 지켜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東아시아의 小國들이 再軍事化된 日本이 아주 위협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美軍撤收는 安定化 効果를 가지는 反面 아시아에서의 美軍撤收는 脫安定化 効果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東아시아國家들에 膨배한 日本에 對한 憂心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原因에 기인한다. 첫째, 現存 世界體制內에서 日本의 急成長이 西歐文化에 威脅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이고, 둘째는 2次大戰을

註 29) Nathaniel Thayer, "Beyond Security: U.S.-Japanese Relations in the 1990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3, No. 1 (Sum/Fall, 1989), pp. 57 ~ 68.

前後하여 저지른 日本의 行爲에 대한 사라질 줄 모르는 원한이며, 세계는 日本이 다시 軍事的으로 超強國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서이다. 이 같은 세가지 우려를 완충시켜줄 수 있는 制度的 장치 가 곧 美日安保條約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日本은 變化하는 國際政治의 현실에 맞도록 共同戰略을 개발하기 위해 美國 및 周邊國家와 함께 그 防衛政策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美國도 東아시아에서의 安定的 均衡者와 地域政策 調整者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美國은 최소한의 역지를 제공하는 太平洋勢力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美國에게 있어 보다 큰 政治力이 요구되는 부분은 東北亞에서 적절한 安保體制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NATO 형의 집단안보체제는 적절한 모델이 되지 못한다. 만약 어떤 모델을 상정한다고 한다면 유럽安保協力會議(CSCE)가 보다 근사할 것이다. 이것은 첫째, 會員國의 포괄성과 둘째, 유연적 운영방식 그리고 셋째로 非公式的 性格에 기인한다. 현재 東北亞 地域國家間에 存在하는 意見과 利害의 多樣性을 고려할 때 政府次元에서의 安保協力機構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때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먼저 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意見들이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는 非公式的 國際포럼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이러한 성격의 安保協力機構에서도 美國은 東北亞地域에서의 우월적 既得權과 影響力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게 指導國의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太平洋 經濟協力體의 必要性은 經濟分野에서도 要求되어지고 있다. 美國의 亞·太政策의 經濟的 次元을 보면 美國은 두 가지 基本的

目標을 가지고 있다.³⁰⁾ 첫째는 이 地域國家들의 經濟成長에 유리한 環境을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太平洋地域에서 美國의 競爭力을 強化하고 強力한 經濟的 活動者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美國은 이제까지 外國商品에 市場을 개방하고 競爭國들에 技術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첫번째 目標의 達成에 확실히 成功的이었다. 그러나 日本이 가공할만한 競爭國으로 성장하고 東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이 출현함에 따라 美國은 두번째 目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美國의 對外經濟政策의 움직임은 이러한 傾向의 強化를 잘 대변하고 있다. 우선 美國은 새로운 貿易法을 통과시켜 大統領과 貿易代表部 代表에 外國의 不公正 貿易慣行에 대한 選擇的 보복을 可能케 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雙務主義的인 協商能力을 강화시켰다. 또한 美國은 一方的으로 外國을 不公正 貿易國으로 선언하는 조치를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貿易摩擦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美國政府는 多者主義에 대한 依存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노력에서 반증되듯이 美國의 지적소유권, 農產物, 外國人投資 등에 대한 市場開放 및 보호주의 타파에 노력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사실상 최근에 들어 美國은 一方主義나 相互性에 입각한 雙務主義보다는 多者的 協力에 기반을 둔 보다 國際的인 協商力增進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美國의 雙務主義的인 貿易壓力이 先進國 相互間, 특히 日本과의 긴밀한 協力關係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

註 30) Mike Mochizubi, op. cit.

다는 우려에 基盤을 둔 것이다. 사실 美·日間の 貿易摩擦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日本의 構造的인 市場開放據否를 주장하는 美國에 의해 文化摩擦로 번지는 예기치 못한 結果를 수반했던 것이다.

그러나 市場의 構造調整問題란 양국의 意思決定方式의 차이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에 의해 누그러져가고 있는, 즉 美日間 雙務的 協商에서 나타나는 높은 水準의 緊張關係가 論議를 진행시키는 美國과 日本의 스타일의 根源的인 不調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³¹⁾ 이에 따르면 美國은 聯邦政府下에서 權力이 配分되어 있는 데다가 行政府高位官僚들이 주로 大統領 측근으로 메워져 政策의 一貫性이 결여되기 쉬운 점에서 “異邦人の 政府”라고까지 불리워지고 있는 데 反해 日本의 예로부터 合意的 文化를 기반으로 政治를 이끌어 온 데다 平生 官僚制로 인해 政策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政策決定過程의 不一致에 留意하여 構造的 問題에 매달리기보다는 建設的인 美國의 協力方案을 찾아내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日本이 世界的인 貿易國家로 성장함에 따라 全世界的 利害關係를 가진 점에 주목하여 GATT나 OECD 및 IMF 등에서 양국간 협력의 여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東北亞地域에서도 多者的 協力氣運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PECC와 APEC의 협력기운의 고양이다. 그 중에서도 太平洋地域의 通商關係를 논의하는 장인 APEC가 보다 큰 관심을 모아가고 있다. 이는 나아가 GATT 등 自由貿易體制 일변도의 國際機

註 31) Raymond Vernon, op. cit., pp. 63 ~ 65.

構에 地域的 特殊性의 主張을 가미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
어 發展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VI. 結 論

戰後 國際關係를 규정해 왔던 冷戰體制가 해빙의 段階에 들었다는 것이 여러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冷戰의 종식은 協力の 새 時代의 基幹을 출발시켰다는 肯定的 效果가 있는가 하면, 敵과 合意의 상실로 인해 東亞와 靑洲이 찾아오는 부정적 效果도 아울러 가져왔다.

現在의 冷戰終熄을 1970年代初의 德鄧트시기와 區分하여 보다 더 完전한 形態의 海빙을 주장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즉 現在의 冷戰終熄은 보다 根源的이며 확산된 형태라는 것이다.³²⁾

첫째, 70年代初의 德鄧트가 美蘇間의 核開發 競爭을 中止시키고자 하는 欲求에 의해 추진된 반면 90年代初에 다가온 海빙무드는 蘇聯內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절실한 必要의 產物이라는 점에서 대조된다. 즉, 前者가 消極的이고 방어적 概念의 冷戰終熄努力이라면 後者는 보다 積極的이고 建設的 方向으로의 努力이라 할 수 있다.

둘째, 蘇聯의 西歐國家에 대한 認識이 變化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0年代까지만 해도 蘇聯은 西歐를 好戰的이고 공격적이며 帝國主義的인 세력의 연합으로 묘사했었지만 80年代末以來 이러한 認識은 力動的인 國家經濟와 安定的인 政治體制를 가진 先進國이라는 認識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蘇聯의 西歐에 대한 이미지는 否定的 意味에서 肯定的 意味로 評價切上된 것이다.

따라서 90年代初에 다가온 冷戰終熄의 물결이 보다 根源的인 것

註 32) Seizaburo Sato, op.cit.

이라고 判斷할 충분한 根據를 가지고 있다.

흔히들 冷戰體制의 탄생을 冷戰협정에서 보고 冷戰體제의 崩壞로 現在의 變化를 압축하고자 하는 시각이 있다. 冷戰體제가 冷戰의 時代였다면 冷戰이후의 體制는 새로운 협력의 時代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 본다면 90年代야말로 진정한 冷戰體제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 본래 冷戰체제는 戰爭當時 聯合國의 合意와 協力を 바탕으로 國際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紛爭解決方式을 提示하고자 한 努力의 일환이었다. 이는 美蘇間의 協力を 基礎으로 하여 우월적 지위를 점한 美國이 世界的 리더쉽을 發揮하고자 한 體制로써, 이제야말로 國際的 規範과 平和維持에 대한 蘇美의 利害 一致를 바탕으로 새로운 國際秩序를 創出해 내야 할 時點에 다다랐다고 보여진다.

새롭게 地평이 열린 협력의 時代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多者間 協力機構의 논의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東北亞地域에서는 紛爭의 불씨를 항상 안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당사국, 그중에서도 美·蘇·中·日·南·北韓이 동시에 參與하는 2+4形態의 平和會議를 實現할 時點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는 政府次元에서 出發하기보다는 各國의 利害를 솔직하게 개진하고 활발한 論議의 장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民間次元의 平和會議로부터 出發하는 편이 좋을 듯 싶다. 이같은 民間人 中心의 상설 협상기구는 信賴構築, 軍備減縮, 經濟政策調整, 環境 및 資源問題 등 포괄적 의제를 놓고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좋은 기반을 제공할 것이 확실하다.

東北亞에서의 平和와 繁榮은 變化된 現實에 기반을 둔 建設의이고 創造的인 措置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Ⅲ. 東歐 社會主義와 東아시아 社會主義의 比較分析

李 命 植
(慶熙大 教授)

目 次

| | |
|------------------------------------|-----|
| I. 序 | 91 |
| 1. 本稿의 目的 | 91 |
| 2. 論文의 構成 | 94 |
| II. 社會主義國家의 比較研究를 위한 틀 | 96 |
| 1. 社會主義 政治體系 모델 | 96 |
| 2. 社會主義 政治體制的 特徵 | 102 |
| III. 社會主義 政治體制的 比較分析 | 106 |
| 1. 社會主義 政治體制的 成立 | 107 |
| 2. 폴란드의 社會主義 | 110 |
| 1) 폴란드 社會主義의 歷史的 背景 | 110 |
| 2) 政治體制的 特徵 | 113 |
| 3. 東獨의 社會主義 | 117 |
| 1) 東獨 社會主義의 歷史的 背景 | 117 |
| 2) 政治體制的 特徵 | 121 |
| 4. 北韓의 社會主義 | 125 |
| 1) 北韓 社會主義政權의 成立 | 125 |
| 2) 北韓 政治體制的 特徵 | 127 |
| IV. 東유럽 社會主義 改革의 現況과 展望 | 129 |
| V. 結：北韓의 改革 可能性과 南·北韓 統一의 展望 | 135 |

I. 序

1. 本稿의 目的

알타會談으로 형성된 20세기 후반의 冷戰體系는 이미 1917年 러시아革命 때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이었다. 革命以後 20여년의 權力 鬭爭에서 승리한 스탈린은 2次大戰의 종결과 동시에 세계는 資本主義 陣營과 社會主義 陣營이 對立하는 구도로 변화되리라고 예상하고 蘇聯-社會主義의 祖國-의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의 어려운 經濟的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연합의 공세에 동참하였다. 1945年 두개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세계대전이 聯合國의 승리로 끝나자 戰勝國이자 大戰을 통해 가장 큰 人的·物的 損失을 입었던 蘇聯은 당당하게 자신의 전리품을 요구했다. 1945年 2月 알타會談에서 聯合國은 蘇聯이 동유럽에 주둔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소련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을 포함하는 동유럽에 社會主義 政權을 樹立시켰고, 極東에서는 韓半島의 북반부를 점령하였다. 美國을 포함한 資本主義 國家들이 大戰以後의 세계구도를 인식하기도 전에 -실사 예견했다하더라도 큰 變化는 없었겠지만- 蘇聯은 社會主義의 祖國을 둘러싼 保護網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세계는 蘇聯을 주축으로 하는 社會主義 陣營과 2次大戰後 霸權을 장악한 美國을 주축으로 하는 資本主義 陣營으로 양분되어 서로 對立하는 冷戰體制로 변화하게 되었다.

冷戰體制가 樹立되자 美國과 蘇聯은 서로를 霸權主義者로 규정짓고 자기 진영내에서의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상대 陣營

에 대한 끊임없는 政治·軍事的인 도발과 經濟·文化的 壓力을 行使하였다. 蘇聯의 경우 社會主義 陣營의 孤立打破와 第3世界의 獨裁權力の 타도를 위한 社會主義 革命의 支援이라는 미명하에 持續的인 革命輸出 事業을 수행하였고 美國의 경우 南美를 비롯한 第3世界의 社會主義 政權의 진북을 위한 軍事 및 經濟的 支援과 對蘇經濟制裁措置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冷戰的 분위기가 가장 尖銳하게 반영된 곳은 冷戰의 實質的 實驗場이 된 독일의 베를린, 韓半島, 쿠바였다. 특히 社會主義 陣營과 資本主義 陣營이 戰爭을 통해 對立한 韓半島의 경우 兩陣營에 대한 不信과 敵對感이 극에 이르러 南北韓이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分斷國家임에도 불구하고 40여년 동안 일촉즉발의 政治·軍事的 緊張이 持續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南北韓의 兩陣營에 대한 學問的 研究도 理念的 굴레를 타파하기 힘든 것이었다. 北韓의 경우에는 再論의 여지가 없지만 言論出版 및 思想의 自由를 保障하는 自由民主主義를 표방하는 南韓의 경우에도 事情은 마찬가지였다. 마르크시즘을 學問的 對象으로 다루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소 進步的인 思想과 宗教 역시 強力한 彈壓을 받았다. 民主主義는 ‘韓國的’이란 용어로 왜곡되었고 經濟分野에서도 政府의 強力한 介入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社會科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특히 政治學의 경우 美國式의 發展모델과 擴散理論이 主流를 이루었고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研究는 理念的 批判의 水準을 넘어서지 못했다. 사실 南北으로 분단되어 통일을 國家의 最高目標로 삼고있는 우리나라의 國家的 利益을 고려하더라도 共產圈國家에 대한 研究는 그 어느 分野보다도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백안시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共産圈國家와 직접적인 交流가 없는 狀況에서 共産圈研究의 活性化를 期待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政治·文化的 制約은 점차로 극복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國際情勢와 中國과 蘇聯 등 主要 共産圈國家의 대담한 改革과 開放政策, 그리고 우리 政府의 적극적인 北方政策의 결과 우리 社會에서는 北韓을 비롯한 共産圈國家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고 이에 따라 共産圈研究의 새로운 章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經濟的·外交的 活動範圍가 北韓을 포함하여 모든 共産圈國家들에게까지 擴大되면서 共産圈研究는 새로운 發展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學者들은 研究의 對象이 되는 共産圈國家와 直接 學術的 交流를 推進할 수 있게 되었으며, 第3國을 통하지 않고서도 학자들은 필요한 情報와 資料를 獲得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共産圈研究는 第3國에 의하여 蒐集·分析된 資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國家的 利益과 시각에서 共産圈研究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北韓研究를 제외한 다른 共産圈研究分析에 있어서 독자적이며 주체적인 판단과 해석을 기대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國家的 利益과 直接 連繫되어 있는 共産圈國家들에 대하여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공산권국가들과의 교류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共産圈研究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本 論文은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면서 東유럽의 主要 社會主義國家들과 동아시아 社會主義國家 특히 北韓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궁극적인 目的은 오늘날 東유럽 社會主義國家들의 政治·經濟的 改革의 動因과 背景을 추적하고 향후의 방향을 전망해 봄으로써 北韓의 改革과 韓半島 統一의 可能性을 診斷해 보고 이를 위한 効果적이고 合理的인 政策樹立을 위한 資料를 提供하는데 있다.

2. 論文의 構成

社會主義 國家들은 地球上에 존재하는 2大 政治體系 모델중의 하나로서 生産手段의 社會化, 中央集權화된 計劃經濟, 單一支配政黨 등의 基本的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¹⁾ 그러나 이들 社會主義 國家들간에도 歷史的·文化的 傳統이나 社會主義 政權의 樹立過程 등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특징들은 國家의 性格을 규정짓는데 干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本稿는 社會主義라는 테두리 內에서 각 社會主義國家들의 특징을 몇가지 중요한 지표하에서 比較檢討하는 方法論을 취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용될 몇가지 중요한 지표는 社會主義를 특징짓는 基本的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方法論에 근거한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章

註 1) Robert Furtak,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Socialist State — An Introduction to Marxist — Leninist Regimes」 (Wheatsheaf Books Ltd., Great Britain, 1986), p.1.

에서는 社會主義 研究의 現況 특히 社會主義 政治體系를 分析하는 모델을 檢討해 봄으로써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과 東아시아 社會主義 國家 특히 北韓을 比較分析하기 위한 몇가지 중요한 基準을 추출해 보겠다. 第Ⅲ章에서는 Ⅱ章에서 추출된 基準에 根據하여 大變革 以前의 東유럽 社會主義國家와 北韓을 分析하고 第Ⅳ章에서는 東유럽 大變革의 背景과 現況 등을 檢討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第Ⅴ章은 東유럽 社會主義 改革에 注目하면서 北韓의 改革 可能性을 展望하는데 할애될 것이다.

II. 社會主義國家의 比較研究를 위한 틀

1. 社會主義 政治體制的 모델

하나의 包括的인 어구나 명칭으로 共產主義 國家를 설명하려는 모델이나 해석에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지침일지라도 그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政治體系를 이해하려고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러한 지침에 기초해서 그 政治體系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확인하고 그것을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종류의 모델과 해석이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며 단지 어떤 政治體系의 주요한 특징을 밝혀 내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社會主義 政治體系의 研究에 대해서는 적어도 4개의 接近法이 여러 해 동안 활발히 활용되어 왔다.²⁾

첫째는 全體主義 모델로, 西歐 및 北아메리카 여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民主主義의 長點과, 東歐의 暴政과 獨裁로 예시되는 共產主義의 短點을 극단적으로 구별하던 冷戰期에 널리 사용된 모델이다. 全體主義 모델이 지적하는 共產主義 體系의 主要 特徵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國家權力이다. 全體主義 모델의 有力한 解析은 1950年代 中반에 프리드리히(Carl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

註 2) Stephan White, John Gardner, George Schöpflin & Tany Suich, 「Communist Political System and Postcommunist」(Macmillan: London, 1987), pp. 21~33.

zinski)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것은 6개의 本質的 特性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社會構成員을 結束시키는 公式的 이데올로기, 전형적으로 1인에 의하여 領導되는 單一大衆政黨, 테러에 의한 警察統制體系, 모든 大衆媒體에 대한 國家의 완전한 獨占, 모든 軍事力에 대한 國家의 거의 완벽한 獨占, 그리고 經濟 全體에 대한 中央의 統制와 指示가 그것이다. 이러한 全體主義 모델은 한동안 社會主義 國家의 자유스럽지 못한 權威主義的 性格에 注目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받아들여졌으나 곧 批判을 받게 되었다. 全體主義 모델에 대한 비판은 주로 두가지 側面에서 가해졌다. 첫째로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의 6개 특징들이 대부분의 共產主義 國家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 특히 發展途上國들에도 적용된다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提示한 6개의 특징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그대로 共產主義 國家에 適用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두번째 批判은 보다 一般的인 것으로서 全體主義 모델이 ‘정태적’이라는 것이다. 환원하면, 全體主義 모델이 막연하게 성숙의 과정이라고 概念化되어 있는 政治發展과 政治變動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社會主義 政治體系를 설명하는 두번째 모델은 近代化 모델이나 發展모델이다. 概略的으로 말해서 近代化理論은 社會的·經濟的 變動과 政治體系 사이에 어떠한 連繫가 있다고 假定한다. 즉, 高度의 社會的, 經濟的 發展과 競爭的이거나 多元的인 政治體系는 밀접한 相互 連關性이 있다는 假定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社會主義 國家에서도 역시 社會的, 經濟的 發達水準이 높아지면 政治體系 內部的 競爭과 多元政治의 水準도 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알렉스테인(Alexa-

ander Eckstein)이 주장했듯이, 社會的·經濟的 발전의 論理가 共產主義體系 및 그것의 政治的 相扶相助를 修正하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전환시켜 버린다. 이러한 主張에 동의하는 學者들로는 브데베데프(Roy Mdevedev), 이오네스쿠(Ghita Ionescu), 도이취(Karl Deutsch), 알몬드(Gabriel Almond) 등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決定論的 假定은 經驗的 研究에 의하여 거의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넬슨(Nelson)의 研究(1977)은 20년 이상의 기간(1949~72)동안에 유럽의 9個國에서 일어난 政治變動과 社會-經濟的 發展 사이의 關係를 檢討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全般的으로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 社會-經濟的 水準이나 社會-經濟的 變化率과 政治的 變數들 사이에 관계가 밀접하다는 아무런 強力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近代化理論의 缺陷은 ‘官僚政治모델’을 社會主義 政治體系 分析을 위한 세번째 모델로 등장시켰다. 이 接近法을 채택한 학자들은 共產主義 國家의 政治가 지닌 세가지 주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 첫째는 共產主義 國家內에서 共產黨의 支配的 位置 및 黨內에서 黨指導者의 支配的 位置이다. 둘째는 실제로 黨의 長期 執權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民主的 統制裝置나 競爭的 選舉의 결여이다. 셋째는 勞組, 言論機關, 產業體, 法院같은 社會機關과 政府가 뒤엉켜 있는 가운데 그것들보다 상위에 있는 일종의 超官僚

註 3) Ibid., p. 23.

제로서의 共産黨이 이들 國家內에서 行使하는 막대한 權力이다. 이러한 官僚體系內에서는 政治가 權力을 장악하려는 다른 競爭者들과 共産黨間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國家를 管理하는 黨과 여타 官僚組織 內部에서 전개된다. 결국 이 體系는 政治體系의 다른 부분에 관한 최고의 政治的 리더십을 行使하는 ‘단일 위계적’ 또는 ‘單一 組織’의 체계이다. 이 接近法을 主張하는 代表的인 學者는 마이어 (Alfred Meyer)로서 그는 “共産主義 統治는 根本적으로 복합적인 組織에 의하여 社會生活 全般을 合理的으로 管理하려는 試圖”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이 官僚政治모델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批判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점은 行政形態의 유사점 자체가 政治體系 全體를 巨大한 官僚制로 概念化하는 것을 正當化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接近法이 共産黨의 독특한 역할, 특히 위계제 下位組織의 要職 任用權 獨占, 그리고 또한 이데올로기의 역할 등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社會主義 政治를 分析하는 4번째 接近法은 ‘마르크스主義的 또는 批判的 마르크스主義 接近法’이다. 마르크스主義 接近法에는 적어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公式的 마르크스主義 接近法으로서 共産政權 自體가 지지하는 접근법이다. 이 接近法에 의하면, 資本家 階級의 타도가 社會主義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며, 社會主義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共産主義로 가게 된다고 한다. 과도하게 치장된 부분을 論外로 한다면 이러한 接近法은 적어도 현재의 社會主義 體系가 지니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려준다. 우선 社會主義 國家에는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가 廢止되었고 失業이

거의 없으며 交通과 住宅같은 생활의 기본적 필요조건이 모든 市民에게 가장 低廉하게 提供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教育과 文化 惠澤도 폭넓게 分配되어 있고, 一般 勞動者가 모든 政府機關에 폭넓게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의 政黨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의 支配政黨이 존재하지만, 勞動者 農民이 그 構成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統治手段이자 國家가 推進하는 政策이 그들이 支持하는 것임을 保障하는 手段이라는 점들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公式的 마르크스主義의 觀點은 共產主義 國家 밖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다. 公式的 마르크스主義의 理論은 黨과 國家 및 餘他 官僚들이 實際로 政治權力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인 物質的 特權도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진지한 설명을 전혀 가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들에 注目하여 共產主義 國家의 支配層이 누리고 있는 特權을 적절히 분석한 接近法이 ‘批判的 마르크스主義’의 틀이다. 이 接近法에 의하면 共產主義 國家의 支配集團은 資本主義 社會의 支配階級이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착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概念化되고 있다. 이러한 接近法을 사용한 代表的인 學者로는 트로츠키 (Leon Trotsky)를 들 수 있는데, 그가 저술한 “배반당한 革命”(1937)에 의하면 蘇聯은 生産手段이 공유되어 있는 까닭에 프롤레타리아 國家이지만 유일하게 特權을 누리고 支配力을 行使하는 階層인 官僚集團이 그들 자신의 私利私慾을 위하여 國家機構를 統制하고 있기 때문에 生産된 財貨가 福祉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生産手段은 國家에 歸屬되어 있지만 國家는 官僚集團이 所有하고 있고, 官僚制가 굳어질

경우 특수한 형태의 私有財産을 創出함으로써 10月革命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트로츠키는 警告하고 있다.

批判的 마르크스主義는 共產主義의 支配層이 누리는 特權을 잘 설명하고는 있지만 수많은 논박도 당하고 있다. 첫째, 그들의 설명에 있어서 核心이 되는 官僚集團의 性格과 構成에 있어서 다소 모호한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며 둘째, 官僚制가 어떻게 자체를 再生産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點을 提起한다는 것이다.

社會主義 政治모델에 대한 이러한 檢討로부터, 우리는 어떤 하나의 설명방법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복합적인 分析方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이란 그 자체의 성격 때문에 1次的으로 중요시되는 어떤 특징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政治體系의 여타 수많은 側面을 過度하게 單純化시키거나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는 브라운 (Archie Brown) 처럼 ‘분별있는 方法論的 折衷主義’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아마도 가장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檢討한 共產主義 政治모델은 모두 長點과 短點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들은 社會主義 政治體系를 적절히 설명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브라운의 折衷主義에 입각하여 社會主義 政治體系를 특징짓는 몇가지 공통된 항목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社會主義 政治體制의 特徵

社會主義 國家들은 비교적 최근에 탄생되었다. 1917年 러시아革命後 여러 해 동안 蘇聯과 蘇聯의 아시아地域 전초기지인 몽고와 쿠바 세 나라만이 社會主義 國家였다. 그러나 1980年代末에는 社會主義 國家로 분류될 수 있는 나라들이 16個國에 이르렀으며 이들 나라들은 世界人口의 약 3분의 1, 世界 産業生産의 40%를 차지하고 있다.⁴⁾ 또한 社會主義 國家들은 世界的 2大産業 블럭인 코메콘, 즉 東歐相互經濟援助會議과 世界的 2大 軍事同盟중의 하나인 바르샤바條約機構를 構成함으로써 사실상 資本主義 陣營과 함께 世界를 兩分하고 있다.

政治學者の 立場에서 볼 때, 社會主義 國家는 地球上에 존재하는 2大 政治體系 모델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西歐의 自由民主主義的 내지 資本主義的 政治體系 모델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根本적으로 반대된다. 共產主義 國家의 公式的 代辦人에 의하면 그 차이는 대다수 勞動者의 利益을 대표하는 東歐의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와 소수 착취자들의 利益을 대표하는 西歐 資本主義의 ‘ 부르조아 民主主義 ’ 사이의 차이이다. 반면, 西歐의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가 國民의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한 西歐의 ‘民主主義’와 자신들이 임명한 黨官僚의 權力에 기초한 東歐 共產主義 ‘獨裁’ 또는 ‘全體主義’ 사이의 차이로 이해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그 차이는 오늘날 世界 政治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政治學者들은 社會主義 國家와 西歐 自由民主主義 國家

註 4) Ibid., pp. 2~3.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크게 4가지라고 생각한다.⁵⁾ 이들 특징은 社會主義 國家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현존하는 모든 社會主義 國家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公式的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公式的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 엥겔스, 모택동의 理論으로부터 導出된 것이며 社會主義 國家의 支配者들이 權威를 行使하는 기초가 될뿐만 아니라 이들 國家의 政治에 基本이 된다. 둘째로, 社會主義 國家의 經濟는 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私有制라기보다는 公有制이다. 그리고 生産은 대개 中央의 計劃機構에 의해 樹立되고 全國的인 經濟計劃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社會主義 國家는 흔히 ‘命令經濟’ 또는 ‘管理經濟’이다. 그것은 西歐의 ‘市場經濟’와 다르다.

社會主義 國家의 세번째 특징은 단일한 支配政黨인 共產黨에 의하여 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統治되고 있다는 점이다. 共產黨 內에서 權力은 대개 고도로 中央集權化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民主的 中央集中制’와 ‘派閥禁止’의 原則에 의해서 確認된다. ‘民主的 中央集中制’에 의해서 위계제의 각 水準은 그것의 바로 위에 있는 水準의 決定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派閥禁止’는 黨內에서 反對派를 組織하는 것을 금지한다. 社會主義 國家의 네번째 특징은 言論, 勞組, 司法部같이 西歐 社會에서는 政治的 權威當局者와 어느 정도 독립적인 制度들이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黨 위계의 철저한 統制下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社會의 모든 부분에 걸친 이러한 광범위한 統制는 ‘黨의 指導的 役割’이라고 알려

註 5) Ibid., pp. 4~6.

져 있다.

社會主義 政治體系의 이들 특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社會主義 國家들 모두에 적어도 原則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社會主義 國家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20여년 동안 ‘社會主義’라는 명칭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은폐되었고, 초창기에 社會主義 國家들이 지녔던 공통의 制度的 틀에 비교해 볼 때 그들 國家들 사이의 상이한 歷史, 文化, 社會構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들 國家의 政治過程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社會主義 國家들 사이에는 상이점이 많고 동시에 유사점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이는 共產主義 政治體系라는 概念이 오늘날에는 더이상 分析的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카우츠키(John H. Kautsky)가 있다. 카우츠키는 ‘比較共產主義 對比較政治’라는 題目的 야심적인 論文에서 共產主義 國家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一般的인 상징과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共產主義 國家體系의 特徵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것이 다른 國家體制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 政治體制가 갖는 특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의 政治體系와 社會主義 政治體系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적어도 社會主義 政治體系는 資本主義 國家와는 根本적으로 다른 下部構造와 政治文化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資本主義 國家와 社會主義 國家間의 平面的 比

較를 무의미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따라서 社會主義 國家들의 政治 體系를 社會主義라는 틀내에서 相互 比較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는 보다 유용하며, 이것이 本稿의 目的이기도 하다.

Ⅲ. 社會主義 政治體制的 比較分析

社會主義 政治體制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資本主義 國家들과 社會主義 國家들간의 差別性에 주목하여 社會主義 國家들의 本質적이고 공통된 特性들을 강조한다. 그러나 東유럽이나 東아시아 社會主義 國家들을 個別的으로 고찰해보면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差別性이 생기는 이유는 個別 國家들이 마르크시즘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독특한 社會·文化的 要素들의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로버트 푸르타크(Robert Furtak)에 따르면 共產黨이 政權을 장악하는 方式, 政黨 指導者들의 社會的·文化的 背景, 個別 國家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構造, 전통적인 價値體系, 地理的 位置, 그리고 國際的 環境 등이 마르크스主義를 해석 적용하는데 影響을 미치는 요소들이다.⁶⁾

本稿는 社會主義 國家들의 공통된 特性을 일반화하여 社會主義 政治體系를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合理的인 모델下에서 개별 社會주의 國家를 比較 分析하는 方法論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本稿는 東歐의 폴란드와 東獨 그리고 東아시아의 北韓을 比較分析해보고자 한다. 이들 國家를 선택한 이유는 폴란드는 社會主義·改革의 선두주자로서, 東獨은 改革과 統一을 成就한 國家로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條件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6) Robert Furtak, op.cit., P.3

1. 社會主義 政治體制的 成立

1917年 러시아革命으로 地球上에 최초의 社會主義 國家가 성립된 이후 世界의 수많은 地域에서 革命的 蜂起가 있었다. 유럽에서는 바바리아(Bavaria)와 헝가리에 소비에트 共和國이 세워졌고, 1920년에는 이탈리아에서 工場이 점거되고 英國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政府政策에 반대하는 鬪爭委員會(Councils of Action)가 세워졌다.

1923년 獨逸과 불가리아에서 보다 심각한 共產主義者들이 주도하는 蜂起가 시도되었고 1926년 英國에서는 總罷業이 발생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中國과 餘他の 植民地에는 보다 강력한 共產主義運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蘇聯은 1919년 모스크바에서 설립된 코민테른을 통해 各國의 共產主義 運動에 影響力을 행사함으로써 社會主義 祖國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共產主義運動은 失敗로 끝났다. 바바리아와 헝가리의 소비에트 共和國은 곧 崩壞되었고 獨逸과 불가리아의 봉기도 여지없이 진압되었다. 1920年代 後半에는 거의 유럽 全域에 權威主義的 政權이 들어서 國內의 共產主義者들과 勞組를 칠저하게 탄압했다. 그 결과 蘇聯은 第2次 世界大戰이 일어나서 國際會議에 참여하고 西歐 大衆의 지지를 받기 이전까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이러한 期間동안 蘇聯은 軍事力과 產業의 發展을 도모하면서 資本主義의 포위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이러한 고립의 위협은 히틀러의 등장으로 보다 분명해졌다. 獨一蘇 不可侵條約이 1939年 調印되었지만 1941年 히틀러는 蘇聯의 西部를 침공했다. 4年の 戰爭期間 동안

蘇聯에서는 2千萬名이 죽었고 엄청난 物質的 損失이 발생했다. 終戰이 가까와졌을 때, 蘇聯의 協商者들이 邊方 특히 西部의 安保를 강화하려고 자신들이 나찌로부터 解放시킨 東歐와 유럽 中央部를 가능한 한 계속 통제하려 한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1944 ~ 45 年에 모스크바, 알타, 포츠담의 會議에서 蘇聯은 西歐 同盟國의 默認下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다. 蘇聯의 統制下에 東歐에 共產主義 國家體系가 구축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 협정의 결과 유럽이 여러 개의 競爭的인 影響圈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社會主義 國家들이 동일한 方式으로 樹立된 것은 아니었다. 各國의 內的 狀況에 따라 多樣한 方式으로 社會主義 政權이 樹立되었다.⁷⁾

먼저 東獨, 北韓,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共產主義者들의 政策에 대해서 國內의 지지가 거의 없었지만 蘇聯軍에 의하여 共產政權이 새로이 수립되었다. 불가리아의 경우 共產黨이 이전에 大衆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었지만 第2次 世界大戰 중에 그 나라가 추축국을 지지하였었고 1944 年에 蘇聯軍에 의하여 占領되어 그들의 도움으로 數年 뒤에 共產政權이 수립되었다.

반면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경우는 共產黨이 대중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었고, 많은 國民들은 심지어 蘇聯軍을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 준 代行者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46 年에 실시된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웠던 選舉에서 共產黨이 第1 黨으로서 有權者의 38%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한편 헝가리에서

7) Ibid., pp.8-14

는 1947년에 실시된 다소 덜 자유스러운 選舉에서 共産黨이 가장 큰 單一政黨이 되었다. 두 나라에서는 그후 모두 聯立政府가 구성되었고, 거기에서 共産主義者들은 재빠르게 支配的인 위치를 점령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北베트남, 中國에서는 다소 相異한 과정에 의해 共産政權이 樹立되었다. 이들 나라의 共産黨은 추축국이나 日本의 侵略에 대항하는 大衆運動에서 指導力을 發揮함으로써 權力을 장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蘇聯의 支援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初創期에 이들 共産政權은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른바 ‘蘇聯軍 軍用列車’에 실려 온 共産政權들보다는 상대적으로 蘇聯에 대하여 보다 독립적이었다.

다음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된 곳은 쿠바이다. 쿠바에서 카스트로(Fidel Castro)는 1959年 바티스타 독재를 무너뜨리고 權力을 장악하였다. 초기에 카스트로의 路線은 폭넓게 民主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1961年 그는 公式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였다.

1975年 베트남戰爭이 종식된 후 南北베트남은 베트남 社會主義共和國이라는 單一國家로 統合되었다.⁸⁾ 라오스에서는 바타나(Sayang Vatthana)왕의 退位와 君主政의 崩壞가 있는 후 人民民主主義共和國이 설립되었다. 한편 캄보디아는 親西方政權인 론롤(Lon Nol)政權이 크메르 루즈에게 패배한 후 근본적으로 共産主義的인 新憲法이 채택되었다. 크메르 루즈는 1978年末 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

8) 憲法の 1976年 全國的인 選舉를 통하여 公式的으로 承認되었다.

남軍에 우호적인 政府에 의해 축출되었다. 그러나 캄푸차(이전의 캄보디아) 人民革命黨이 이끄는 새 政權은 國際적으로 여전히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 國土 全域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폴란드의 社會主義

1) 폴란드 社會主義의 歷史的 背景

18 C 몇개의 貴族共和國를 통합하여 한 명의 統治者를 王으로 추대하고 귀족들이 강력한 權力을 행사하는 統治形態를 취한 폴란드는 貴族間의 對立으로 18 C 末頃에는 國內政治적으로 허약해지고 對外的으로는 獨立性을 상실하여 1772年, 1793年, 1795年 세번에 걸쳐 蘇聯,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등의 周邊 強大國들에 의해 國土가 분할되는 정치적 비운을 겪었다. 이러한 國土의 分斷은 폴란드 國民에게 울분과 저항심을 길러주어 폴란드의 國民蜂起는 유럽 全般에 걸친 獨裁政治 反對 및 革命運動과 연결되었으며 수차레의 대규모 獨立爭取運動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1864年 1月の 大規模 暴動이 실패하고 3分된 폴란드가 蘇聯, 오스트리아, 프러시아로 완전히 예속되자 폴란드의 政治哲學은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武力에 의한 解放運動 보다는 組織된 改革試圖를 선택했고, 對外的인 의미의 獨立 대신에 폴란드 民族의 對內的 獨立運動이 추진된 것이다. 수차레에 걸친 國民蜂起의 실패는 폴란드귀족들의 指揮力도 현저하게 약화시켜 새로 구성된 知識階級이 과거와 다른 理念을 갖고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市民爲主의 社會主義

的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第1次 世界大戰 直前에는 勞動者運動으로 확대되고 社會主義政黨 등 左派勢力과 民族的 民主主義黨 등 右派 勢力이 동시에 표면화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와 獨逸帝國의 軍事的 崩壞 및 蘇聯에서의 革命 등 國際的인 環境變化는 1百年 以上 계속된 폴란드國民들의 끈질긴 民族統一과 國家獨立 要求를 충족시켜 1918年 새로운 共和國이 건설되었다. 新生國 폴란드는 政治·經濟的으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출발했다. 政治的으로 폴란드는 西유럽國家들의 형태를 표준으로 삼아 議會民主主義 共和國을 형성했었다. 그러나 확고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 農民과 勞動者들의 政黨이 亂立함으로써 폴란드 議會는 안정된 勢力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는 자연히 빈번한 政權交替를 가져왔다. 이러한 政治的 混亂 속에서 獨立運動으로 명성을 얻었던 필수드스키가 1926年 革命을 일으켜 全體主義에 가까운 政治體制를 도입하였다. 經濟的으로도 폴란드의 어려움은 큰 것이었다. 폴란드의 經濟管理體制는 통일되었지만 현대적 구조를 가진 西쪽 및 中央地域과 反封建的 色彩를 아직도 유지하는 東쪽 및 東南쪽 地域間的 격차가 컸으며 農地改革도 지연됨으로써 均衡을 이루지 못했다.

폴란드 獨立國家는 불행하게도 겨우 20년동안 계속되었을 뿐 1939年에 이르러 재차 히틀러의 獨逸과 蘇聯에 의해 國土가 분단되고 말았다. 占領外勢는 폴란드에서 日本의 韓半島 政策과 비슷한 혹독한 수탈정책을 폈다. 蘇聯은 점령한 東폴란드부터 原住民을 추방하여 脫폴란드化를 추진하였으며 獨逸은 民族社會主義의 유대인 중 박해정책의 실현장으로, 또한 戰爭에 필요한 勞動力 確保場所로

폴란드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非人道的인 전체주의와 비타협적 統治方法은 폴란드 國民들로 하여금 과격하고 단호한 저항운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무장한 地下獨立運動에서 시작하여 非協調, 無抵抗運動과 地下文化 형성에 이르기까지 外勢排斥이 國民의 몸에 밴 습성으로 굳혀지게 되었다.

2次大戰이 끝나갈 무렵 蘇聯의 지지를 받아 폴란드 共產主義者들이 주동이 되어 組織된 폴란드 民族解放委員會는 政治的 위세를 몰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하여 市民抵抗運動인 「故鄉軍隊」는 獨逸占領地域 바르샤바에서 1944年 10月 蜂起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간 후 그 影響力과 位置가 극히 저하되었다. 붉은 軍隊는 바르샤바의 문턱에 駐屯해 있으면서도 폴란드 市民의 反獨逸 抵抗運動을 방관하고 있다가 4개월 후 완전히 破壞된 바르샤바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주하였다. 이때에 이미 戰爭後 폴란드의 政治的 앞날이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戰爭이 끝나자 保守的 市民政黨은 체면유지나 原則問題를 中心으로 權力鬭爭에 임한 데 반하여 共產主義者들은 蘇聯이 이미 駐屯해 있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사소한 사항부터 처리하면서 實利的으로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폴란드의 政治的 分裂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1942年 再組織된 共產主義 政黨인 폴란드 勞動黨조차도 單一化되지 못했다. 비어루트를 中心으로 한 親모스크바 共產主義者들은 蘇聯 統治體制와 社會體制를 그대로 모방할 것을 주장한 반면 고몰카와 같은 民族共產主義者들은 폴란드의 社會主義의 再建을 촉구했다. 國際政治的으로 冷戰體制가 고착되고 保守市民野黨이 천면 금지되면서 폴란드 共產主義者들은 권력을 제한없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대통령 비어루트는 1948年 9月 고몰카 대신에 共產黨 書記長職까지도 맡음으로써 新生共和國 폴란드의 最高 權座에 오르게 되었다.

2) 政治體制의 特徵

폴란드는 憲法上 社會主義國家로서 國民은 國會인 “세임”을 통하여 權限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政治의 方向과 原則을 결정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 政黨 中에서 第1野黨인 統合勞動黨이 “세임”의 活動을 左右한다. 現實社會主義國家에 있어 政治體制는 대부분 總體的인데 그 이유는 國家를 지배하는 공산주의정당이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支配權限을 행사하며 모든 分野에서 組織, 情報 및 政策決定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폴란드에 있어서도 例外가 되지 않아 모든 國家機關과 政治, 社會, 文化團體들이 統合勞動黨의 감독과 그 지배하에 움직인다. 다만 폴란드 政治體制는 완전한 單一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카톨릭교가 獨立된 政治要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카톨릭교는 歷史的, 政治文化的 特殊性으로 인해 宗教的, 社會的, 民族的 利益을 대변하는 第2의 政治勢力이 되었다.

폴란드의 統合勞動黨은 1976年 2月 改正된 憲法에서 超憲法的地位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政黨과 國家의 실제적인 政策決定은 폴란드 統合勞動黨 中央委員會의 政治局에서 이루어진다. 政治局은 大略 10여명의 最上位 共產黨員으로 형성되는데 1981年 10月 이래 최근까지 야루젤스키 第1書記에 의해 統率되고 있다.

東유럽 社會主義國家의 政治體制는 두가지로 대별된다. 社會主義

單一政黨이 政權을 장악한 蘇聯, 헝가리, 루마니아의 경우와, 統治政黨外에 몇개의 群小政黨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폴란드, 東獨, 체코, 불가리아 등이 있다. 이러한 상이한 政治體制의 발생은 各國의 相異한 歷史的 背景에서 기인한다. 폴란드의 경우는 당초 社會主義 國家 樹立때 共產主義政黨의 세력이 약하였으며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共產主義가 아닌 勢力도 吸收했으므로 多數政黨體制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에서는 單一政黨體制가 아닌 경우에 群小政黨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 政黨의 指導的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基本的 前提條件이다. 폴란드 第2政黨인 統合國民黨은 48萬名의 黨員을 갖고 있으며 第3黨인 民主黨의 黨員도 10萬名에 이른다. 그러나 이 두개의 政黨은 黨員들의 出身 社會階層 利益을 대변하는 동시에 執權黨인 統合勞動黨의 政策에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政治體制上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임”이라 불리는 議會에 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폴란드憲法 20條 1項에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은 폴란드 國民共和國 세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憲法에 따라 “세임”은 法律을 제정하며 政府役割을 하는 閣僚委員會를 통제하고 소집, 해산시키거나 長官을 개별적으로 해임시킬 권한을 갖는다. 또한 “세임”은 國家行政을 감독하며 社會經濟國民計劃, 즉 5個年計劃을 결의하고 年間 國家豫算도 의 결한다. 그러나 폴란드에 있어서도 다른 共產國에서와 같이 “세임”은 統合勞動黨에 의해 운명이 左右되는 形式上的 議會 範圍를 넘지 못한다. 다만 폴란드의 경우는 執權層의 政治的 地位에 따라 혹은 國際的 與件에 따라 時期的으로 議會의 政治力 行使가 크게

차이가 난다. 政治狀況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는 議會議員들은 行政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批判態度를 가지며 모든 案件이 公開投票에서 滿場一致로 결의된다. 그러나 1956年, 1970年 그리고 1980年 등 政治狀況이 불안했을때 議會의 活動과 役割이 크게 伸張되었다. 共産黨의 統治力이 下落하면서 議會의 政治的 權威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80年代의 폴란드議會는 獨立된 政治的 決定機關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全的인 同意 舉手機 役割만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폴란드議會는 政治輿論 造成에 상당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폴란드의 國家評議會를 살펴볼 수 있다. 國家評議會는 “세임”에서 선출되어 형성되는 國家의 集團 最上位機關이다. 立法과 行政業務를 동시에 수행하는 混合性格의 國家評議會는 17名으로 구성된다. 이 機關은 議會가 休會하는 동안에 法律을 제정하고 總理의 提請이 있을 경우 閣僚委員會 會員인 長官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또한 國家評議會는 議會開催時期를 결정하여 議會를 소집하며 國際條約을 批准하고 行政官吏와 軍幹部 및 法官 등을 임명하고 勳章 授與 및 赦免權 行使등 國家元首로서의 役割을 수행한다. 이러한 國家評議會는 간혹 戒嚴令을 선포하는 등⁹⁾ 權力濫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共産國家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폴란드의 政治的 機構로는 上記한 機關 以外에 閣僚委員會, 民族委員會, 司法機關 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統合勞動黨의 影響力 아래에 있는 機構들로서 餘他 社會主義 國家들과 大差는 없다. 폴란

9) 1981.12.13. 戒嚴令을 決議 宣布하였다.

드에서 주목해야 할 政治的 組織은 社會主義的 政治體制로부터 독립한 유일한 큰 組織인 카톨릭 教會이다. 國民의 90% 이상이 카톨릭 敎人이며 대부분이 실제로 教會에 출석하거나 宗教行事に 적극 참여한다. 이와 같이 높은 信仰心에 반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國民들의 인식 속에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宗教가 共產理念과 國民의 영혼을 획득하기 위하여 鬪爭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다만 카톨릭敎는 道德的인 힘으로써 政治的 生活에 있어 마르크스-레닌 黨과 競爭하는 위치에 있다. 카톨릭敎는 國民多數에게 道德的 影響力을 행사하는 機構를 가지고 政府와 社會問題를 협의하는 파트너가 되어주며, 司敎團은 共產黨과 懸案 國家問題 協議를 위한 委員會를 구성하여 政治力을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폴란드에 있어 또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政治的 勢力은 軍部이다. 1981年 12月 폴란드 軍部는 직접 정치에 간여하기 시작했다. 行政府의 4個 長官職을 現役 軍人이 차지했고 黨中央委員會의 主要 部署와 最高監督院이 軍人에 의해 統率을 받게 되었다. 政府는 國民들에게 陸軍將軍 야루젤스키가 대표하는 社會主義 國家의 政策이 폴란드의 國是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啓蒙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폴란드의 政治에 있어 特性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폴란드의 社會主義的 國家主義가 다른 共產主義國家와 달리 政策決定過程에 國民들을 참여시킴으로써 政策의 合理化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經濟 및 社會政策分野에서 一般大衆이 討論을 통하여 결정에 참여토록 권장했고, 1982年 3月에는 “세임” 안에 이를 위한 特別委員會를 설치하는 法案을 결의하였다. 이는 폴란드 政治體制가 共產黨政策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억압적 方法으로

부터 점차로 國民의 同意를 얻어냄으로써 合法性을 인정받고자 하는 方向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東歐改革의 先頭로 폴란드가 부상할 수 있었던 政治的 背景을 설명하는 데 하나의 단추를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東獨의 社會主義

1) 東獨 社會主義의 歷史的 背景

獨逸의 共產黨은 1次大戰 以後에 성립하여 1930年代에 성장하였다. 1933年 1月 30日 히틀러가 全 獨逸을 장악할 당시 獨逸 共產黨은 약 30萬의 黨員을 보유함으로써 蘇聯에 이어 두번째로 큰 規模였다. 1932年 選舉에서 獨逸 共產黨은 600萬票(16.9%)의 지지를 획득하여 720萬票를 차지한 社民黨에 이어 120萬票의 차이만을 보였다. 이러한 勢力을 가진 獨逸 共產黨은 히틀러의 治下에서 고전을 하였으나, 이때 生存한 黨員들은 獨逸 共產黨의 基盤을 형성하였다. 獨逸 共產黨은 다른 共產黨과는 달리 1961年 까지 西方과 통로가 열린 채로 西方에로의 流出이 많았던 까닭에 다른 東歐 共產黨보다 理念的인 性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¹⁰⁾ 여기서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東獨 共產黨의 樹立과 發展過程을 주로 고찰해 보겠다.

2次大戰 末期 戰後 處理를 위한 協議過程中 포츠담會談에서 蘇聯은 戰前 獨逸의 5分の 1에 해당하는 領土(戰後 獨逸領土의

10) Jonathan Steele, 「Inside East Germany」 (New York: Urizon Books, 1977), pp.18-19

3분의 1)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것이 東獨樹立의 시작이었다. 初期 蘇聯의 占領政策은 全獨逸(All-German)의인 性格을 띄었으나 베를린封鎖 以後 새로운 通貨改革 政策을 발표하고 1949年 3月 人民會議에서 憲法을 채택함으로써 그해 10月 7日 마침내 獨逸 民主共和國을 성립시키게 된다. 東獨政府樹立後 첫 5년 동안은 民族主義와 社會主義가 서로 갈등하는 시기였다. 스탈린主義者들의 政策은 獨逸人에게 매력적이지 못하였고 더욱이 東西獨間의 격차의 심화는 급속한 統一의 희망을 저해하였다.

1949年 두 개의 獨逸이 수립되면서 反파시스트時代는 막을 내리고 獨逸의 共產黨인 獨逸社會主義統一黨은 어느 정도 安定基盤을 마련하였다. 1950年 第3次 黨大會에서 獨逸社會主義統一黨은 마침내 새로운 黨憲을 채택하는 데, 그 主要內容은 社會主義 殘黨에 대한 鬭爭強化, 民主集中制, 그리고 蘇聯의 指導力을 인정하는 레닌主義 政黨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또한 1952年 개최된 第2次 黨會議에서는 “獨逸에서의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東獨의 發展을 蘇聯의 發展過程에 일치시킬 것과 勤勞者와 農民의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한 階級鬭爭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¹¹⁾ 이에 따라 東獨에서는 行政改革과 社會改革이 병행하여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소비에트化 推進은 東獨內에서 강력한 반발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蘇聯化에 대한 불만은 1953年 스탈린 死後에 실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獨逸社會主義統一黨의 指導者인 울브리히트는 스탈린

11) Arthur M. Hanhardt, Jr.,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 Teresa Rakowska-Harmstone(ed.) [Communism in Eastern Europe]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1984) pp. 143-144.

의 領導를 찬양해왔으나 스탈린 死後 混亂에 빠지게 되었다.

1951년부터 1955년까지의 1次 5個年計劃期間 동안 經濟의 社會主義的 分野는 급속히 팽창하였다. 그러나 國有化 措置와 蘇聯株式의 반환으로 經濟下部構造가 취약해서 經濟的인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에 獨逸社會主義統一黨은 生活水準의 向上과 個人的 權利強化를 약속하는 새로운 穩健路線을 제시하였으나 賃金引上 없이 높은 生産性이 요구됨으로써 1953年 東베를린을 포함하여 270여 곳에서 勞動者의 蜂起가 발생하였다.¹²⁾

이를 계기로 黨指導部內에서도 反올브리히트 그룹이 결성되는 등 반발이 보여졌다. 이에 올브리히트는 1954年 4次黨大會를 즈음하여 脫스탈린化를 수용하는 대신에 黨內에서 이 問題에 대한 討論을 금지하는 路線을 취하였다. 그러나 黨內的 올브리히트에 대한 비판은 증대되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第5次 黨大會를 계기로 올브리히트는 黨內的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經濟目標達成 실패와 集團化의 危機로 東獨人口의 西方으로의 流出이 급증하여 마침내 東獨體制 自體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¹³⁾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후르시초프는 베를린障壁을 구축하는 蘇聯式 解決方法을 지시하였다. 베를린障壁의 構築은 獨逸社會主義統一黨 發展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이 期間中 東獨은 인상적인 經濟成長을 기록하였으며 東獨國民들도 주어진 環境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12) Arnulf Baring, 「Uprising in East Germany: June 17, 1953」
(Ithaca and London : Cornell Univ. Press, 1972)

13) 1949年 9月부터 1961年 8月 15日까지 東獨人口의 西方으로의 流出은 270萬名에 이른다. 이는 東獨을 떠나 難民村에 수용된 약 100萬名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보여주었다.

1960年代에 이르러 獨逸社會主義統一黨은 동원적인 성격의 計劃經濟의 한계를 인식하고, 對內的인 宥和政策을 추구하면서 蘇聯에 대해 獨自的이고자 하는 “國家意識”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3년에 발표된 統一黨의 프로그램은 새로운 社會主義 時代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모든 것이 人民과 함께, 人民을 통해서 人民을 위해서” (Alles mit dem Volk, alles durch des Volk, alles für des Volk)를 原則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63年 第6次 黨大會에서는 中央計劃經濟의 緩和와 리베르만 方式의 수용등을 포함하는 新經濟政策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國家利益’, ‘國民經濟’에 대한 언급이 보편화되어, 6次 黨大會에서 울브리히트는 東獨의 歷史的 役割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平和聯合, 國家利益, 民主主義, 그리고 社會主義 秩序를 언급하는 등 國家意識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8年 체코의 改革努力이 蘇聯의 체코침공과 함께 실패로 끝난 후 東獨의 發展路線은 東·西歐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68年 이래로 蘇聯을 향하게 된 西獨의 東方政策과 1968年 中蘇紛爭, 美·蘇테탕트 분위기하에서 蘇聯이 西獨에 접근하면서 東獨과 蘇聯의 緊張關係가 조성되었고 울브리히트의 西歐와의 關係改善 努力이 만족할만한 成果도 없이 東獨과 蘇聯과의 갈등만을 유발시켜 결국 울브리히트는 사임하게 되고 말았다.

1971年 울브리히트의 辭任으로 뒤를 이은 호네커는 蘇聯과의 관계를 再整備하고 막스-레닌主義로의 복귀를 강조하였다. 經濟分野에 있어서 호네커는 產業擴大와 經濟成長의 지속, 勞動者·農民의 生活水準向上을 主要課題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目標은 1970

年代 世界的인 景氣沈滯와 인플레이의 影響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호네커는 이러한 問題에 대응하기 위해 生産性 向上, 生産過程의 自動化, 에너지의 效果的 사용을 主要 內容으로하는 社會主義 合理化計劃을 樹立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經濟問題의 타개를 위해 호네커가 추진한 西方과의 關係改善은 消費生活에의 欲求增大와 西方文化의 침투로 國內政治의 우려요인까지 가져 오게 되었다.

2) 政治體制의 特徵

東獨 政治體制의 目標은 ‘發達된 社會主義의 達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外部의 敵에 대항하여 社會主義 秩序를 옹호할 獨逸社會主義 統一黨의 安定과 이를 正當化해 줄 經濟的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이루어져 있다. 黨의 安定은 大衆의 組織과 動員 그리고 어느 정도의 參與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經濟的 만족은 經濟過程의 合理化와 統制의 緩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黨의 大衆組織과 動員은 ‘組織內的 統制’와 ‘組織에 대한 統制’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이는 블록政治와 二重統制라는 東獨政治構造의 特徵을 낳게 되었다. 블록政治는 體制 各 分野에서의 統合達成과 함께 달성된 各 分野의 統合을 體制 全體水準에서 완성시키며, 下部構造의 統制와 效率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意圖를 보이고 있다. 이는 民族戰線, 黨中央委員會, 政治局 그리고 各種 水準의 委員會 構成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二重的 統制는 블록政治를 유지하는 手段的 性格으로 黨의 其他組織에 대한 統制, 各 組織 自體內에서 黨의 其他組織에 대한 統制, 그리고 各 組織 自體內에서

의黨員에 의한統制로 이루어진다.

(1) 黨構造

東獨에 있어서 獨逸社會主義統一黨(以下 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은 그 어떤 組織보다도 우월한 指導的인 地位를 갖는다. 東獨憲法 第1條는 東獨은 社會主義 國家이며, 勞動人民의 政治組織은 勞動階級과 그들의 막스-레닌主義의 黨下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構造는 黨組織의 下位機關이 된다. SED는 東歐의 다른 共產黨과 같이 蘇聯共產黨과 유사하며, 指導理念은 民主集中制이다.

SED는 中央委員會(Zentralkomitee: ZK)와 여기에서 선출되는 政治局과 書記局을 中央機構로 하고, 地區(Bezirk)와 地域(Kreis)別 黨組織 및 作業場과 居住地 黨組織, 그리고 最下位の 細胞組織으로 구성된다. 政治局은 실질적인 最高機關으로 黨과 體制全體에 대한 常設指導部로서 各 地區 SED 第1書記를 포함하여 14~26人으로 구성된다. 政治局의 任務는 黨의 一般的 業務方向을 제시하며 政治體制的 가장 중요한 부분간의 組織的 凝集力을 확보하며, 體制全體의 戰略과 매일의 效率을 확보 감독하는 것이다.¹⁴⁾ 政治局이 政治的 指導力을 행사하는 機關이라면 書記局은 黨運營과 政府行政을 擔當하는 機構이다. 書記局은 國家 各 部署와 상응하는 部署를 두고 있으며, 各各의 政府部署와 黨 部署 사이의 聯合會議를 통해 권위를 행사한다. 書記局은 中央委員會에서 선출되는 11人의 書記로

14) Peter C. Ludz, 「The Changing Party Elite in East Germany」
(Cambridge: MIT Press, 1972) P.123

구성되며 이들은 各 部를 책임지게 된다.

自由獨逸民族戰線 (Nationale Front des Demokratischen Deutschland : 以下 NF)은 SED의 同盟政策의 일환인 블록政治의 進行過程에서 성립되었다. 蘇聯의 占領下에서 절망적인 社會, 經濟狀況과 戰後 '民主獨逸' 建設의 어려움 그리고 民族的인 社會民主主義者를 무마하기 위한 反파시스트 聯合의 형성이 모태가 되었다. 1968년에 이르러 NF는 憲法的 地位를 갖게 되었는데 이 組織의 主 任務는 모든 市民에 대한 政治的 責任形態와 責任있는 市民들을 한 組織 形態로 묶고 慶祝行事 등의 共同體 計劃, 選舉管理와 候補者 指名 調整 등이다. NF는 결국 東獨에서 政治組織을 水平的, 垂直的으로 연결하며 全國民을 망라하는 것으로 그 內容은 別문제로 하더라도 일종의 組合國家的인 特徵을 보여주고 있다.¹⁵⁾

(2) 國家機構

東獨의 議會는 最高機關으로서 牽制, 均衡, 分立보다는 民主集中制 原則에 바탕을 두고 있다. 構成은 單院制로 5年마다의 選舉로 이루어진다. 主要機能은 國家政策의 基本的 問題에 대한 決定을 하며 政府의 宣言을 承認하고, 豫算, 經濟, 計劃, 立法案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또한 形式的으로는 議會는 國務會議, 閣僚會議, 國家防衛會議, 檢察總長, 最高法院長을 선출한다.

한편 東獨의 國務會議는 國家集團 指導部の 性格을 지닌다. 初期

15) Bradley C. Scharf, 「Politics and Change in East Germany : An Evolution of Socialist Democracy」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84).p.25

에 大統領制를 채택하였으나 피크(Wilhelm Pieck) 死後에 集團指導體制로 전환하면서 國務會議은 西歐의 大統領과 유사한 機能을 하고 있다.

東獨에 있어서 실제의 行政府, 즉 政府는 閣僚會議이다. 閣僚會議은 대체로 西歐의 各部 혹은 省과 類似한 機能을 수행한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國民經濟 分野에서 여러 細部的인 部와 調整委員會가 설치된 점일 것이다. 閣僚會議의 주된 업무는 經濟計劃과 일상적인 경제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이다.

(3) 大衆組織

東獨 政治體制를 논하는 데 있어 大衆組織과 社會組織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東獨에서의 大衆組織은 政治體制와 大衆을 연결하는 매개벨트의 役割을 하며 大衆을 조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東獨의 大衆組織은 자발적인 贊成으로 이루어진다. 大衆組織에의 參與는 社會的 上昇의 前提이며, 體制에 대한 최소한의 충성으로 여겨진다. 또한 大衆組織 構成員은 金融的인 惠擇 등의 利得을 볼 수 있으며, 黨, 國家, 經濟指導者의 充員은 이들 組織內에서 活動이 우수한 자를 拔擢으로 예가 많음으로 하나의 중요한 政治的 地位에로의 接近路가 되기도 한다.

東獨의 大衆組織에는 ‘勞動組合聯合’, ‘自由獨逸青年’, ‘獨逸民主女性同盟’, ‘文化同盟’, ‘獨蘇友好協會’, ‘技術會議所’ 등이 있다.

그러나 東獨에서 유일하게 存在하는 私組織은 教會組織이다. 東獨에서도 폴란드처럼 教會는 國家에 대해서 自律權을 가지고 있다. 教會의 獨立性은 國家나 教會指導者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教會와 國家와의 관계를 보면 1959年까지는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호네커의 등장 이후 宥和政策이 취해졌으며 教會와 國家間的 對話가 진행되었다. 東獨의 教會는 아직 自律을 가진 私組織이며 世俗의 權威에 完全히 속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祭壇과 王冠의 提携”를 통해 教會는 國家의 利益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다.

4. 北韓의 社會主義

1) 北韓 社會主義政權의 成立

1945年 解放과 함께 韓半島는 美·蘇에 의해 分割占領되었다. 5千年을 한민족으로 살아온 韓國의 國民들 사이에 統一에 대한 열망은 강렬했지만 南北韓 兩側의 政治勢力과 美·蘇 兩大國은 統一된 政府構成을 위한 성의있는 努力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狀況下에서 南韓에서 單獨選舉의 可能性이 높아지자 北韓은 이에 대항하여 1948年 8月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를 실시하고 같은 해 9月9日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樹立을 선포하였다. 北韓의 初代 內閣首相에는 金日成 人民委員會 委員長이 선출되고 이후 金日成은 第2次(1957.9), 第3次('62.10), 第4次('67.12) 內閣을 組織하였다가, 1972年 12月 國家機構 改編에 의해 初代 國家主席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北韓은 金日成을 중심으로 한 指導體制가 확립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련에 직면하였었다. 當初 北韓의 政權 內部는 金日成의 直系勢力인 甲山派를 위시해 國內派, 南朝鮮

勞動黨派, 蘇聯派, 延安派 등 많은 파벌로 나뉘어져, 指導權을 둘러싼 몇 번의 격렬한 權力鬭爭과 肅清을 되풀이하었다. 1953年 8月の 南朝鮮勞動黨派의 肅清, '56年 8月 延安派와 蘇聯派의 反金日成運動은 金日成 政權을 根底에서부터 흔들만한 것이었다.

1961年 9月 朝鮮勞動黨 第4次大會를 前後하여 비로소 金日成은 黨과 政府內의 對抗勢力을 일소하여 1人 獨裁體制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동요하기 시작한 國際政治情勢는 北韓에도 큰 影響을 미쳤다. 특히 1961年 5月 韓國의 朴正熙 政權 出現, '62年 10月 쿠바危機 및 그것을 계기로 표면화된 中·蘇對立, '65年 12月 韓日國交正常化 등은 北韓의 對內外 路線을 둘러싼 黨內의 意見對立을 초래했는데, 특히 經濟建設과 對南政策이 초점이 되었다. 결국 '67年 3月 박금철, 이효순 등의 黨 首腦가 肅清되고 '69年 1月 최광, 허봉학 등의 軍 首腦가 左遷·肅清되었다.

1970年 10月, 9年만에 朝鮮勞動黨 第5次 大會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드러난 黨 中央委員會는 '61년에 비해 日新된 모습이었으며, 黨 政治委員 및 秘書는 金日成과 抗日運動을 함께 한 파르티잔派와 金日成 直系人物로 구성되었다.

1972年 10月 南韓에서 維新體制가 등장하고 國際情勢가 급변하자 12月 北韓은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1次會議를 開催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이라는 新憲法을 발표하였다.¹⁶⁾

16) 이 憲法은 終戰處理憲法이라고 할 수 있는 舊憲法('48.9.8. 公布)를 전면적으로 改正한 것이지만 北韓이 當時까지 쌓아 올렸던 社會主義國家의 成果를 憲法에 선전하였다는 점에서 改正이라기 보다는 新憲法이라 할 수 있다.

이 憲法에 의하여 金日成은 初代 ‘國家主席’에 취임하여 명실공히 모든 國家權力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1974年 以後에는 北韓에서는 思想鬭爭의 일환으로 金日成과 黨에 대한 ‘絕對性, 無條件性, 充實性’을 강조하는 한편 金日成의 父母, 祖父母, 前婦人, 同生까지를 ‘革命의 家系’라고 稱하는 運動을 전개했고, 1980年 10月 第6次 朝鮮勞動黨 大會 以後에는 金正日을 後繼者로 부각시키기 위한 各種 思想鬭爭과 宣傳活動을 강화하고 있다.

2) 北韓 政治體制의 特徵

北韓 政治體制의 가장 큰 特徵은 ‘國家主席制’로서 國家主席은 憲法과 모든 法律 및 思想을 초월하는 거의 神的인 存在이다.

北韓 憲法에 의하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그 主權이 人民에게 있고 人民이 自身들의 代表機關인 最高人民會議 및 地方各級 人民會議를 통해서 主權을 행사하는 社會主義 國家이다. 國家機關은 民主主義와 中央執權의 原則에 의해 組織, 運營된다.

中央機關으로는 最高人民會議, 中央人民委員會, 政務院(內閣), 中央裁判所, 中央檢察所가 있고 地方機關으로는 各級 人民會議, 各級 人民委員會, 各級 行政委員會, 各級 裁判所, 各級 檢察所가 있어 強度 높은 中央執權制가 취해지고 있다.

國家元首는 最高人民委員會에서 선출되는 國家主席이 되고, 國家元首는 國家의 수반이며 國家의 主權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北韓의 政黨 및 社會團體에 대해 살펴보면, 北韓의 憲法은 第53條에 의해 ‘結社의 自由’를 보장하는 정도이고 第4條에서 ‘朝

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적용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 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北韓은 一黨獨裁의 蘇聯과 달리 朝鮮勞動黨 以外에 朝鮮社會民主黨, 天道敎청우당 등 群小政黨이 있지만 모두 勞動黨의 支援團體的인 存在에 불과하며 앞의 憲法 規定으로부터도 判別할 수 있듯이 北韓의 實權은 勞動黨에 의해 集中的으로 장악되어 사실상 北韓은 金日成이 이끌어 가고 있는 朝鮮勞動黨의 一黨獨裁 國家이다.

政黨 以外에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祖國平和統一委員會 등의 統一促進團體와 朝鮮職業同盟,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朝鮮民主女性同盟 등의 社會團體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勞動黨의 산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Ⅳ. 東유럽 社會主義 改革의 現況과 展望

1989年 東歐를 휩쓸었던 民主化改革運動은 人民들의 民主化, 自由化에 대한 열망의 폭발이 얼마나 놀라운 政治的 힘을 發揮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다. 獨占權力 해체를 促求하는 根本的인 政治民主化 要求와 이를 바탕으로 한 國民의 뜨거운 결속은 지난 20여년간 이들이 보여준 政治的 침묵 내지 무기력을 考慮할 때 劃企的인 일이 아닐 수 없다.

40여년간 持續되어 온 共產黨의 獨占權力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의 조용한 革命을 선두로 하여 체코와 東獨人民들의 民主化를 외치는 합성파,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는 광음을 거쳐서 급기야는 루마니아의 유혈민중봉기로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東歐의 大變動은 그동안 이들 國家들이 겪어온 政治, 經濟, 社會的 위기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1948년 이후 東歐國家들에게 一律的으로 강요되어 온 蘇聯型 社會主義는 우선 經濟的인 면에서는 生産手段의 國家所有와 中央執權的 計劃經濟의 이중적 特性을 갖는다. 또한 政治的으로는 “共產黨의 社會와 國家에 대한 指導的 役割”로 표현되는 共產黨의 일당독재체제가 核心的 特徵이다.

이러한 政治·經濟的 特性은 거대한 관료지배체제를 形成함으로써 體制의 官僚主義的 경직성과 技術革新의 낙후, 만성적인 消費財 不足 및 品質低下 등 각종 經濟的 非效率性을 초래해 왔다. 동시에 黨官僚의 權力 및 情報獨占, 그리고 이들의 부패로 인하여 市民의 自由가 制限되었으며, 勞動者들이 經濟的, 政治的으로 소외되는 등 전반적인 非民主的 政治風土가 만연하게 되었다.

共產體제의 經濟的 非效率性과 政治的 非民主化에 對하여 東유럽 社會內에서는 1970 年代 中盤부터 서서히 각 나라의 文化, 宗教, 價値와 같은 民族的 遺産과 民主的 政治傳統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980 年代에 들어서서는 共產權力이 강요해 온 수동적이고 원자화된 「公式的 社會」 이면에 自律的이고 民族的·民主的 價値를 中心으로 단합된 非公式的인 ‘第2의 社會’가 形成되기 시작하였다. 共產權力으로부터 自律的인 市民社會의 부활은 한편으로는 박스·레닌주의에만 依存해왔던 既存 共產權力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이들의 崩壞를 가능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市民社會는 現 民主化改革을 급진적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核心的인 役割을 담당하였다.

現 東歐의 大變革이 可能했던 理由는 위와 같은 내적인 要因以外에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라는 外的인 要因이 강하게 作用했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東유럽 各 나라에서 民主化와 自由化를 要求하는 人民들의 ‘안으로부터의 改革’과 蘇聯에서 的 ‘밖으로부터의 改革’이 일치됨으로써 現 改革이 可能했던 것이다.

이러한 背景下에서 經濟的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가장 먼저 政治·經濟的 大變革이 일어났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막강한 社會權力으로 온 國民의 支持를 받고 있었던 自由勞組가 共產黨과의 聯立政府에서 주도권을 爭取함으로써 동구사상 최초로 共產黨 一黨獨裁統治에 종지부를 찍는다. 지난 20 여년간 꾸준히 經濟改革을 시도해온 헝가리에서는 共產黨內의 改革派 指導者들의 입지가 強化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은 그동안의 社會改革의 失敗

를 克服하고 國民들의 信賴感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社會主義黨으로 변신하여 대대적인 改革을 단행한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의 變化에 힘입어 東獨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人民들이 保守的인 共產黨政權에 대항하여 民主化 시위를 벌인다. 國民들의 壓力에 밀려 保守的인 指導者들이 사임을 하고 改革派 人物들이 黨權을 잡음으로써 共產黨의 일당독재 廢止, 다당제, 自由選擧 實施 등의 대변혁이 可能하게 되었다. 불가리아도 현재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東유럽의 現 改革過程중 가장 비극적인 일은 1989년 말에 일어났던 루마니아 事態이다. 지난 25년간 民族主義와 스탈린主義의 교묘한 混合으로 독재정권을 維持해 왔던 차우체스쿠 政權은 이웃 社會主義 國家들에서의 改革을 外面한 채 國民들의 經濟的·政治的 불만의 表출을 強壓的인 方法으로 對應하려다가 결국 유혈 民主봉기에 의해 타도되고 말았다.

각 나라의 狀況에 따라 改革의 具體的인 內容과 進行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推進하고 있는 變化의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一致하고 있다. 첫째는 經濟體制의 革新으로서 市場經濟原理, 사적 소유의 폭넓은 도입이다. 計劃經濟와 生産手段의 國家所有는 이 두 要素를 受容하면서 존속할 것이다. 둘째로는 言論과 사상의 自由가 사실상 許容되었으며, 셋째로는 새로운 法秩序가 確立되어 나감으로써 ‘法治共產主義’ (Constitutional Communism)가 도래하고 있다. 넷째는 共產黨의 指導的 役割이 廢棄되면서 黨과 國家의 分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政治改革의 核心으로서 黨의 獨占權力이 포기되었다. 이러한 政治改革은 다당제와 自由

選舉 實施의 成功與否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改革은 맑스·레닌主義的인 共產黨의 일당독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여태까지 社會主義圈을 지배해 온 蘇聯式 社會主義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을 意味한다. 이것은 스탈린主義와의 완전한 割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레닌主義의 核心的인 要素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東유럽의 改革主導者들은 물론 人民들도 社會主義 自體를 부정하려 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市場經濟는 社會主義와 兩立可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現在 改革을 주도하고 있는 左派勢力들은 다당제 自由選舉를 통해서도 社會主義를 옹호하는 勢力이 계속 政治的 主導權을 고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蘇聯에서는 고르바초프의 改革過程을 社會主義 發展段階內에서 規定지으려는, 다시 말해서 社會主義理念과 改革共產主義와의 理念的 關係를 再定立하려는 理論的인 作業이 活潑한데 반하여, 東歐國家들에서는 이러한 理論的인 시도와 論爭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理由는 蘇聯에서는 改革過程에 있어서 共產黨 內部的 改革派와 保守派間의 葛藤이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고 따라서 改革派들이 그들의 政策을 理論的으로 정당화할 必要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東歐國家들 內部에서의 改革은 이제 黨內的 保守派와 改革派 사이의 壓力에 국한된 問題가 아니다. 오히려 '改革派와 國民들 사이에서 그 具體的인 內容과 速度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問題에 달린 것이다. 이것은 또한 活潑한 理論論爭에 의해 촉발된 1956年~1968年 사이의 수정주의 改革運動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現 改革의 方向은 現在 西歐에서 爭點이 되고 있는 社

會主義 強化論과 資本主義에로의 收斂論등의 理論的 論爭을 초월하여 社會主義의 內容의 核心인 私有財產制의 制約에 의한 平等과 政治的 參與의 擴大라는 基本原則下에서 다양한 社會主義形態가 出現할 것이다. 또한 이 다양한 社會主義體制는 政治, 經濟, 社會 前一般에서 모든 人民大衆의 民主主義를 實現可能케 하는 각 國家의 傳統的, 現實的 狀況에 맞는 ‘民主的 社會主義’를 指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東유럽 國家들이 現在 구상중인 改革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障礙要因이 存在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經濟的인 난관으로서 이의 克服與否가 改革의 成敗를 左右할 것이다. 우선 東歐 大部分의 國家에서의 經濟危機의 심각성을 考慮할 때 과연 自由市場과 私企業을 폭넓게 導入하는 것이 可能한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시장경제와 사기업이 수십년 동안에 쌓인 經濟的 폐해를 치유할 수 있을지는 더욱이나 疑問視된다.

改革에 있어서 政治的 障礙要因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共產黨의 權力獨占의 포기는 國民들의 ‘아래로부터의 改革’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 강요된 것이었다. 따라서 共產黨은 權力을 분할함으로써 反對勢力이 國民들로부터 賦與받고 있는 正統성을 빌려 權力을 維持하며, 同時에 만약의 政治·經濟狀況의 惡化에 따른 責任도 나누어지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政治改革이 成功的으로 推進되기 위해서는 既存의 執權勢力과 協力 또는 이를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政治엘리트의 出現, 그리고 동시에 대안적 制度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政治狀況의 급변으로 자칫 既存의 집권 세력이 갑작스레 權力을 상실할 경우, 權力의 공백과 이에 따른

經濟的 混難은 東歐 各 體制의 崩壞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40여년간의 非民主的 統治體制로 부식당해 온 民主的 政治文化의 재생이 필수적 課題이다.

다음은 國民들의 民主的 要求와 항상 결합하여 나타나는 民族主義가 과연 새로운 政治秩序의 樹立過程에서 어떠한 役割을 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最近 東歐社會內에서는 맑스·레닌主義의 쇠퇴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共產政權 樹立 以前에 이 地域에서 盛行하였던 人民主義的인 民族主義가 다시 등장하였다. 이들 國民들의 民族主義는 民主에 대한 要求와 결합하여 共產權力의 독재에 대항해 왔다. 그러나 東歐에서는 本質적으로 권위주의적인 政治文化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民族主義가 과연 民主主義 確立을 沮害하는 要素로 作用할지 아니면 民主主義에 吸收, 쇠퇴할 것인가가 중요한 問題이다.

마지막으로 東歐國家들의 改革은 蘇聯 內部的 成功與否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東歐의 變化와 蘇聯內部的 民族問題—발트 삼국과 우크라이나의 自律權 主張 및 아제르바이젠의 民族紛爭 등—와의 相互作用으로 蘇聯의 國內危機가 초래될 危險도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東歐의 改革도 蘇聯內部的 改革要素와 民族要素가 얼마만큼 조화롭게 解決되는가에 影響을 받을 것이다.

V. 結 : 北韓의 改革 可能性과 南北韓 統一의 展望

北韓이 政治·經濟的 改革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1980年代 末에 本格的으로 論議하기 시작했다.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와 東歐의 改革이 現實化되기 이전까지도 北韓의 改革이나 開放은 거의 不可能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北韓과 유사한 政治體制를 가진 루마니아가 차우세스쿠의 처형과 함께 급진적인 改革을 經驗하게 되자 世界의 이목은 北韓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第Ⅲ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데올로기적 對立이 주축이 된 冷戰體制의 종결과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의 民主的 改革이 北韓體制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속단일 수 있다. 北韓體制의 改革 可能性에 否定的인 點數를 줄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理由는 北韓의 開放이 現實적으로 不可能하다는 점이다. 變化하는 國際秩序의 雰圍氣나 資本主義 社會의 政治的 自由와 經濟的 풍요가 北韓으로 밀려들어 갈 경우, 北韓은 體制自體가 崩壞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體制의 崩壞는 곧 기득권을 가진 階層의 瓦解를 意味하므로 北韓의 支配層은 開放을 극력 저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北韓의 改革은 ‘위로부터의 改革’에 의해서만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改革은 아래로부터나 外部로부터의 壓力에 支配層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때 수행된다. 北韓은 現在 蘇聯으로부터 外的 壓力을 받고 있고 內部的으로도 強力한 經濟的 壓力을 받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러한 壓力을 緩和시킬 수 있는 몇가지 배출구를 가지고 있다. 外

的 壓力에 對應하여 北韓은 자신들의 指導理念인 ‘主體思想’을 強化함으로써 내적 結속을 다질 수 있다. 또한 내적인 壓力에 대해서는 分斷과 平等한 부의 分배나 生活水準의 向上(과거에 비해) 등을 이용하여 對應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改革을 단기간에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에 開催되었던 전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이나, ‘우리 식으로 살자’ 등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北韓의 改革과 開放의 展望이 밝지 않다는 것은 곧 南北韓 統一의 展望이 어둡다는 것을 意味한다. 統一의 過程이란 本質적으로 開放과 統一以後의 體制에 適應하기 위한 體制改革을 要求한다. 따라서 開放과 改革을 거부하는 北韓이 統一의 장으로 선뜻 나서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따라서 北韓이 유화적 제스츄어나 相互交流의 意思를 보이는 것은 다분히 對내외적 壓力을 緩和시키는 手段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統一은 韓民族의 숙원이며 우리 民族번영의 主춧돌이다. 따라서 이러한 現實的 狀況에도 不拘하고 統一을 위한 努力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北韓의 改革과 開放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政策을 開發하고 이를 持續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統一의 過程을 體制와 理念의 對決過程으로 認識하는 한 統一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먼저 統一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

(國統調 90-11-75)

東北亞의 新國際秩序와
美·蘇의 政策變化

1990年 12月 日 印刷

1990年 12月 日 發行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제5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8호 Tel : 720-2145

인쇄소 : 웃 고 문 화 사

Tel : 267-3956

〈非賣品〉